

민중화해

01/02
Vol. 102
2020 January + February

권두 인터뷰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특집

기रो에 선 한반도 평화



CONTENTS

VOL. 102 2020 JANUARY + FEBRUARY



민족화해 2020년 01+02월호(격월간, 통권 102호)
 등록번호 마포, 마00101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발행인 김홍걸
 편집인 원희복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김석진, 박인휘, 조남훈, 전영선, 정구연, 장용훈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신한디엠빌딩 15층
 전화 02-761-1213
 디자인 및 제작(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COVER STORY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남북 민화협은 2019년 2월 해금강에서 함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기원했다.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2020년, 다시 남북이 함께 민족의 길을 밝혀나가길 간절히 바라본다.

02 편집인 칼럼
 새로운 100년의 진정한 계획 · 원희복

04 포토에세이
 한 줄로 나란히 · 조천현

06 권두 인터뷰
 ·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은 서로의 기회이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 정구연

12 특집-기रो에 선 한반도 평화
 ·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풀기 위한 정상 수준 전략대화 필요한 시점 · 서주석
 · 2020년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상황 논리’와 ‘일관된 가치’ 사이 균형 필요해 · 박인휘
 · 북미 협상 돌파구의 시작, 일괄타결 원칙 합의와 단계적 이행 · 박종철

24 민화협 사람들
 · 설훈 민화협 상임의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만들 수 있어 · 염규현
 · 김세연 민화협 상임의장·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염규현

32 신년특집 전문가 대담
 · 2020 미중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색
 한국의 중견국 외교 실현과 성숙한 한중관계로 한반도 신 냉전구도 깨뜨릴 수 있어 · 김선규



40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

-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플랫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진정한 존재 가치입니다” • 염규현

44 민족화해 네트워크

- 2019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 편집부
- 2019년 제17회 민족화해상 시상식 • 편집부

46 청년 리포트

-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 • 송정환
- 민화협 정책위원회 통일정책포럼 • 이정도
- 민화협 지역 대화 <2019 인천민족화해포럼> • 권성우

52 기자의 눈

- 그래도 우리의 선택은 평화여야 한다 • 김민지

56 문화 모니터

- 문학 속 통일미래
‘북핵’, 풍자 소재로 삼은 스웨덴 베스트셀러 소설 • 오태호
- 우표로 보는 남북 북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우표특별전 “헤어져 있으나 같은 꿈을 꾸다”
• 편집부
- 영화 속 북한 이야기
실리를 살려야 한다 영화 <부부 지배인> • 전영선

68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70 편집부 이야기

72 민화협 사서함

새로운 100년의 진정한 계획

+ 원희복

〈민족화해〉편집인·〈경향신문〉부국장

얼마 전 우리 민화협 집행위원들은 2019년 마지막 회의를 갖고 조출한 망년회를 가졌다. 집행위원 모두 지난 1년을 회고하고 좋은 덕담을 나눴다. 필자는 '새로운 100년'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자며 건배사로 '세우자'를 제안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신년 계획을 세운다. 집안의 건강을 기원하는 작은 소망도 좋고, 심지어 담배를 끊겠다는 작심삼일 계획이어도 괜찮다.

지난 1년 우리는 '3·1혁명 임시정부 100년'을 자축했다. 이제 2020년을 맞으며 냉철한 마음으로 '새로운 100년'을 생각해야 할 때다. 새로운 100년이란 1919년 3·1혁명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난 것과의 '다름'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100년은 무엇이었나. 잘 알다시피 1919년 3·1혁명은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전환이었다. 정치적으로 패망한 왕조시대를 접고, 국민이 주인인 공화국 시대를 연 근·현대사의 시작이었다.

이후 다양한 세계사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이식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정치는 풍부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슬기롭게 조정하지 못했다. 광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놓는 약간의 방법론 차이로 비칠 수 있었다. 이 공통의 목표가 사라지자 우리는 소아(小我)에 집착했다. 역사의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1894년 동학혁명, 1896년 아관파천 등 경쟁적으로 외세를 끌어들이 민족끼리 총질하게 만든 그 고질병이다. 이는 조선반도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장(戰場)으로 만들고, 결국 망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 고질병은 민족 간 반목을 넘어 급기야 서로에게 총질하는 내전과 분단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 분단과 내전이라는 '민족 앞의 죄'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모순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 분노를 화해로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100년은 과거 100년, 우리 민족세포에 숨은 고질병부터 도려내야 한다. 역사에서 수없이 목도했지만 '외세'는 도우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천사'가 아니다. 세상사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평범한 이치지만 국제사회는 더욱 그러하다. 겉으로는 '인류애'니 '무상원조'니 포장하지만 외교 축배잔 넘어 번뜩이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다. 최근 우리는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지금 한반도, 동북아 국제환경은 100여 년 전인 1905년 7월 일본 내각총리대신이자 임시외무대신이었던 가쓰라 다로(桂太郞)와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 사이에 맺어진 '카즈라-태프트 밀약'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오히려 2020년 동북아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 국무장관은 북을 '불량체제'라 적시하더니 미 국방장관은 '불량국가'라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차마 옮기기 두려운 말을 했다. 실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다.

이에 북은 2020년부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북이 말하는 '핵전쟁과 관련한 억지력'이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을 말한다. 이미 북의 핵 보유는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핵과 핵이 충돌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표현에 함축돼 있다.

이 문제가 어찌 북미 간만의 문제인가. 이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과 직결된다.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역할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그리 요구했던 최소한 조치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와

같은 담대한 독트린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온 국민이 새로운 10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이 모두를 대통령과 정치인의 책임으로 미뤄왔다. 우리 모두 '글로벌'이라는 미명에 현혹돼 민족적 과제를 망각하며 산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새로운 100년'은 지난 100년의 낡은 껍질을 벗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의존과 굴종, 그리고 갈등과 증오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정치세력이 사라져야 한다.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에 일장기까지 들고 광화문을 서성이는 굴종의 군상이 사라져야 한다. 그들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 겁먹는 패배주의적 세력도 사라져야 한다. 남북 화해를 가로막고 증오심을 부추기는 세력도 극복대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이 국론분열 원인이라는 엉터리 글을 마구 쓰는 언론이 그들이다. 제로섬 게임 운운하며 북 미회담과 한반도 상황을 '먼 중동전 즐기는 듯' 중계하는 자칭 전문가들도 반성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주변국의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 그들은 군사, 무역, 금융은 물론 학술, 농업 분야까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한 '민족적 생존'의 문제다.

이제 우리 모두 외세 의존적이었던 지난 100년을 버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는 새로운 10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해 12월 12일 몽양기념사업회가 연 송년 특별대담에 참석했다. 이 송년 특별대담이 열린 단상에 걸린 캐치프레이즈가 '2020 한반도 내일, 우리가 열자'였다. 📌





한 줄로 나란히

조천현 PD

한 줄로 나란히
강위를 걷습니다.
행진하는 것처럼
씩씩하게 걷습니다.
겨울바람 맞으며 걷는 길
칼 바람에 얼굴이
금새 시려웁니다.
앞에선 아이의 발자국을 밟고 갑니다.
앞에선 아이는 칼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 줄로 걸어갑니다.

조천현은 조·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INTERVIEW

강원도
도지사
— 최문순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남북은 서로의 기회이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에게 지사직을 수행하며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아쉬웠던 일을 물었다. 의외로 두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였다. 남북관계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순간, 최 지사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큼 다가옴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얼어붙은 남북 간 모습에서 그는 다시는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최문순 지사는 평창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의 기회를 금강산을 통해 멈춤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금강산은 남북교류협력의 시작이자, 열쇠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2일 강원도청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담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정리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❶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36대~제38대 도지사로 강원
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 그동안 어떤 변화와 발전
이 있었다고 평가하는가?

“그동안 강원도의 최대 현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때문에 올림픽을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했다는 데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 평창 이후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나아가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뤄졌다. 평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도민들 역시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강릉 간 KTX,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그동안 제조업 기반이 취약했던 도에 4차 산업, 청

정산업 등을 유치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도 성과다. 전기차 생산조합중심의 상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형 상생협약을 지난 8월 체결했고, 임대형 전기차 생산공장을 9월 착공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삼척 액체수소도시 조정을 통해 정부의 동해안권 에너지자원벨트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2020년 9월까지 분산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예정이고, 지난 5월에는 국제수소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수소 생산시설 및 충전소 설치, 수소전기차 보급 등을 통해 액체수소 산업을 선점하고자 한다. 의료기기, 바이오헬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육성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7월 춘천+원주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앞으로 의료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모아 정밀의료산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무엇보다 강원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일자리센터, 일자리 안심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 일자리사업, 일자리국 신설 등을 통해 강원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인데, 9월

현재 고용률 65%로 시도 중 2위의 성과를 얻고 있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중 강원도일자리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이는 도내 분산된 일자리 업무를 통합수행하는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④ 말씀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 교류와 평화를 이끌어낸 전환점이자,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인류의 우정을 나눈 축제의 장이었다. UN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157개국 이 공동 발의하고,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평창올림픽을 위한 휴전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북한은 선수단 46명, 응원단 229명, 기자단 21명, 고위급 대표단 27명 등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로 참가했다.

이러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그 유산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2018평창기념재단을 지난 4월 설립했다. 현재 ‘2018평창 대회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유산사업을 추진 중이다. 평창 평화포럼, 드림프로그램, 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올림픽 이후에도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쟁을 멈춘 평창, 평화를 만들어낸 평창

④ 지난 11월 방미하여 펜스 부통령에게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강원도 남북교류 6대 과제를 담은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도민 차원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운동본부가 발족되었고, 범국민차원의 운동도 전개 중이다. 현재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민에 있어 생존의 문제

이고, 삶의 문제이자, 먹고사는 문제다. 지난 2008년 7월 이후 올 11월까지 지역경제 피해액만 약 4,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때문에 도민 스스로 지난 9월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민화협을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들도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도민, 나아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저희도 다양한 차원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 역시 펜스 부통령에게 서한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 필요성, 원산~금강~설악 연계 동해 관광 공동 특구, 고성 UN평화특별도시 조성, 평창평화포럼의 정례화 및 세계화, 남북 강원도 지방정부 수장 만남 추진, 화살머리고지 등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의 협력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도는 전방위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의 당위성과 도민의 열망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관광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다.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도다. 때문에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와 평화의 시작이자 상징이기도 하고, 열쇠이자 입구이기도 하다.”

④ 기존 금강산 관광 외에 추진하려는 남북협력사업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을 온 힘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다. 호텔, 콘도 등 270개 동을 짓고 내년 4월 15일 개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산 역시 강원도이다. 추후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 강원도가 함께 금강~원산~설악을 연계하는 동해 관광 특구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내년 4월 원산을 가고자 한다. 원산을 가려면 속초에서 배를 타고 가거나, 양양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마공항으로 가야 한다. 현재 이를 위해

속초항에 2만 톤급 크루즈를 준비했고, 플라이강원을 만들어 소행 비행기도 준비했다. 남북관계가 그 이전에 속히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하늘 길과 뱃길이 하루 빨리 열려야 한다.”

❶ 남북관계가 어렵다. 북미관계가 고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남북 간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는가?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며, 각국이 선수단 안전 등의 문제로 평창올림픽의 참가를 망설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올림픽에 참여하며 한반도 평화시대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동안 강원은 분단한국의 변방으로 소외되고, 최전방에서 안보불안을 매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대가 있었다.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 해소와 상시적 전쟁 위협으로 인한 국내외 투자 기피 극복의 과제를 안고 있다. 평화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전체 행정구역의 49.5%인 2,391km²에 달한다.

평창 이후 이뤄진 남북의 3차례 정상회담과,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만남은 한반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 사건이었다. 분단과 갈등, 전쟁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넘어가 안타깝기만 하다. 저는 어려운 남북관계를 다시 풀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여러 진전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다. 때문에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우선 사람이 서로 오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작은 공을 굴려서 큰 공을 만든다(小球轉球大球)는 말이 있다. 앞으로도 강원은 정부, 시민사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작은 공을 굴려 큰 공을 만든다

❶ 현재 강원을 비롯해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 등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대의 지자체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남북교류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교류, 한반도 평화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도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포기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문제인 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에 적극 공감하며 동의한다. 우리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로서 남북교류에 대한 권한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평화’는 일상이 되는 평화, 지속가능한 남북강원도 공동체 발전을 의미하고, ‘특별’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차별화된 분권 기능 부여를 말한다. 또한 ‘자치’는 남북공동 시범자치구역을 운영하며 이를 평화체제 실험의 장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때문에 현재 우리는 ▲국무총리 소속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 재정, 조례의 제개정 및 특별회계 계정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 설치, ▲남북 경제 협력공간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 지금 당장 할 일도 해나갈 것이다. 우선 중앙정부가 하기 어려운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을 앞장서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민간 등과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를 공동개최해 왔다. 또한 산림병해충(솔잎혹파리 등) 공동방제, 연어부화장 건립 등 농림수산협력과 대

북 밑가루 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① 그동안 민화협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민간통일운동 협의체로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송환사업을 사상 최초로 북측과 함께 추진해 올해 1차 사업을 마무리했고, 금강산 남북공동행사를 치르며 금강산 관광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민화협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민화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부탁한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 간 화해와 교류협력 및 평화실현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1998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오랜 동안 ‘하나의 나라, 평화, 연대의 등불을 밝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남북교류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오랜 견해였다. 지금 강원도에서 자발적인 시민단체 모임인 ‘금강산관광재개범강원도민운동본부’가 발족돼 강원도민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화협의 그동안의 활동은 경이적이고 매우 고마운 것이었다. 현재 민화협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운동본부’를 만들어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접경지를 대하고 있는 도지사로서, 또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을 대신하여 민화협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김홍걸 대표 상임의장은 열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유골송환과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등은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이 밑바탕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또한 민화협의 200여 회원단체들의 든든한 지지가 있었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민화협은 해야 할 일이 더욱 더 많을 것이다. 더 많이 자주 남북을 오가며

남북을 연결하고 소통케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평화체제 실험의 장이 될 것

① 세계 유일한 분단도의 도정을 오랫동안 이끌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많았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도 크리라 본다. 강원도의 평화, 통일은 무엇일까? 아울러 점점 통일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메시지를 부탁한다.

“강원도는, ‘평화가 돈이고 경제이며, 생존’이다. 때문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남북교류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해왔다. 지난 20여 년간 남북교류의 목적과 평화를 향한 염원은 곧 ‘평화경제’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강원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경제 영토 확장(북방 경제) 등을 통한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강원은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계획을 추진해왔다. 우선 대북제재 범위 내 비경제·비정치적 교류를 통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북강원도 결핵 퇴치, 말라리아 공동 방역 등이다. 아울러 실질적·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분야별 남북교류협력협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는데, 농업, 산림, 건설·교통, 문화·관광, 보건·의료는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이고, 곧 해양·수산, 자원·에너지 분야의 협의회도 구성 예정이다.

통일은 단순히 지리적 통합이 아닌 정신적, 경제, 문화 등 전 방위적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삶의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기성세대로서 미안할 따름이다. 때문에 그들이 통일에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일견 이해된다. 하지만 통일이



정구연 강원대 교수(왼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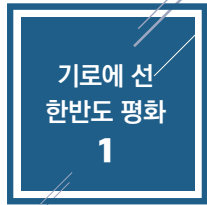
되면 남북의 청년들이 가장 큰 혜택과 변화를 맞을 것임을 확신한다. 결국 통일은 작금의 이념, 세대, 빈부 간 갈등의 고리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은 그 민족의 무능’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별을 보며 방향을 찾는 지혜와 복잡하게 얽힌 분단의 사슬을 한칼에 끊는 기백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갖길 바랄 뿐이다.”

① 현재 우리에게 경제성장 둔화, 취업률 하락, 양극화 현상, 적폐청산 등 많은 과제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역시 평화일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한다.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분위기가 최근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모든 대화와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올림픽 이후 형성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민간, 정치권 등 모든 계층과 함께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통해 남북 간 경색된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 교류 및 관광의 매개이자 돌파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강원도남북교류협력협의회 운영, 춘천-원산 포럼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정부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지만 평화를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 지금까지 북의 행동을 보면 지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와중에 남측에 대한 실망도 커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북미 양자 관계로만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 남·북·미 3자 소통구조가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미 간 시간차를 이어줄 다리가 필요하다. 비핵화 협상이 지금까지처럼 난관에 부딪친 것은 북미 간 타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 직전까지 협상을 끌고 가려하고 북은 아무 성과 없이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들이 공표한 2019년 12월까지 무언가 카드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가 넘어가면 평창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양국의 시차를 메우려면 브리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이다. 일단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브리지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금강산이 중요하다. 새해에는 남북이 함께 금강산에서 만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다시 가자, 금강산 일만 이천봉!” 🌈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풀기 위한 정상 수준 전략대화 필요한 시점

+ 서주석 전 국방부차관

2020년을 앞두고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사이의 힘겨루기가 역시 문제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고,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도 소득 없이 끝나자 12월 들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연이어 ‘중대한 시험’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이 달라질 거라며 으름장을 놓는 중이다. 연말 이후의 임의 시점에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미 간 핵협상은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가 동조화되면서 북한의 대미 불만이 남측을 향해 표출되는 양상까지 나온다. 북한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여러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지나치게 기댄다며 거센 비난을 재개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서도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에는 좀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그 뒤에는 우리 전통문에 거의 응답을 하지 않았다. 지·해·공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약속도 지난 11월 23일 김정은 위원장 현장 지시에 따른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 이외에는 지켜지고 있지만,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발굴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공동 근무 및 자유왕래 등의 합의는 미이행 상태다.

북한은 군사 문제에서 더욱 직접적인 요구와 시위를 하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해 지난 3월 과거의 키리졸브 연습을 대신한 ‘동맹’ 연습과 4월 이후 해병대 및 공군 간의 대대급 이하 군사훈련, 그리고 8월의 ‘전작권 전환’ 연습, 11월의 공중연합 훈련 모두를 비난하면서 중지를 요구했다. 또 한국군의 F-35A 전투기 도입과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 등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사실상 한반도를 사정거리에 두는 13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통해 전력 증강과 대외 무력시위를 동시에 겨냥했다.

2020년의 ‘새로운 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1년 전과 판이한 것은 지지부진한 북미 핵협상 때문이다.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어 9월 조건이 맞을 경우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이 이미 진행되어 당장의 완전한 비핵화가 힘들다는 점에서 단계적 대안으로 받아들일 법 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변 이외 시설을 추가한 “영변+a 대 일부 제재해제” 방안이 거론됐지만 결과는 결렬이었다. 미국은 비핵



지난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공중훈련의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화 없이 제재 해제가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했고 북한의 민생부문 제재 완화 요구는 거절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대미 협상팀을 교체하는 등 반전을 기대했다. 6월말 트럼프 대통령과의 판문점 깜짝 회동 이후 약속한 실무회담이 지연되면서 한미 연합연습 등을 비난하며 미국의 자세 전환을 압박했다.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뒤늦게 열렸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에 더해 한미 연합연습 중단 등 요구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은 석탄·

섬유 등 일부 제재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했지만 협상테이블에서 구체적 협의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은 대로 그 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최근 비건 미국 협상대표의 방한과 대북 회동 제의에도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이 연말 이후 추구한다고 하는 ‘새로운 길’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다. 이미 소집 발표가 나온 당중앙위 전원회의 등을 통해 핵협상 중단 및 자력갱생 노선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낸 중러와의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경제적 밀착이 강조될 것이다. 또 인공위성 등 장거리로켓 발사와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대미 전략도발이나 대남 군사 긴장 상황도 이어질 수 있다. 만약 2017년 이전의 안보위기 상황이 재발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과거 미국이 군사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 강경한 대북 군사조치도 다시 거론될 위험이 있다.

2018년 이후 '전략적 전환' 국면

2020년 초 어두운 전망을 앞에 두고 해법은 쉽지 않다. 문제가 꼬인 데에는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입장 차이가 크고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북미와 남북 간 여러 차례의 정상 회동과 실무회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략대화는 아직 부족하다.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

정부 시절 매분기 장관급회담이 스무 차례 이상 진행됐지만 남북관계의 주기적 악화를 막기 힘들었다.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지만 회담의 정례화가 안 되어 실질적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2018년 이후의 국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복수의 회담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첫 물꼬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계기 김여정 당제1부부장 등 특사단 방남이었고 그 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우리 특사단의 방북과 방미 등을 통해 긴밀한 교감이 이루어져 수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큰 전환에는 경제·핵 병진노선으로는 북한의 경제건설과 체제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의 판단, 한반도 비핵평화를 위해 대화 재개를 일관되게 주창한 문 대통령의 인식, 그리고 북한의 전략적 전환 가능성을 직감하고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한 트럼프 대통

령의 직권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18년의 변화가 상시적인 대화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당국 간 대화는 아직 정례화 되지 않고 있다.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지만 실질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남북고위급회담도 그 해 10월 열린 뒤 개최되지 않았다. 평양공동선언에서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우선 설치하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으로 뜻 깊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후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북미 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전환을 시도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의 실무 당국자들이 같은 인식 하에 구체적이고도 철저하게 대안을 모색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위기에서 기회로, 한반도 긴장완화의 해법

북미 핵협상과 남북관계가 모두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해법은 쉽지 않다. 북한은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다시 꺼내들었고 그대로 둘 경우 안보위기 재발로 나아갈지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북미의 태도 변화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미 핵협상이 난관에 빠진 만큼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시절엔 청와대 북핵대책TF가 임기 내내 가동되면서 술한 협상안을 만들고 미국 등과 조율했다. 지금도 한미 및 한중 등 전략대화를 통해 수용 가능한 창의적 방안을 충분히 만들어 전략도 발을 막아낼 수 있다.

남북 간에도 정상의 교감과 이해를 되살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위급회담이나 군사회담 등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통문 또는 물밑 접촉만으로

관계개선이 될 수 없다. 북핵과 남북 교류협력, 군사관계 전반의 상황과 전략을 다시 검토하고 그 틀 위에서 튼튼한 방식의 해결책이 모색되면 어떨까 한다. 남북 정상회담이든 고위급 특사 파견이든 정상 수준의 깊이 있는 전략대화가 필요하다. 교감이 회복되면 정상회담 및 당국 간 회담 정례화부터 실천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국방장관회담 정례화 및 핫라인 개설과 더불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절실하다. 최근 북한이 문제 삼는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나 무력증강 문제도 거기서 협의할 의제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긴장완화에 더욱 기여할 DMZ 평화지대화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설정도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의제로 되어 있다.

돌이켜 보건대 남북 사이에 지속적인 전략대화의 경험은 많지 않다. 1970년대 7·4 공동성명을 만들어 낸 밀사 교환이 있었지만 관계는 곧 악화됐다.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비슷했다. 2000년 이후 남북장관급회담과 2003년 이후 6자회담에서는 대화가 장기간 지속됐다. 핵은 북미 간 문제라 했지만 6자회담 틀 안에서 남북 간에 수많은 논의가 오갔다. 2004년 7월 대규모 탈북자 귀국 등으로 당국관계가 단절됐다가 이듬해 6월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파견되어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 일거에 남북관계가 풀렸다. 그 해 9·19 공동성명이 나와 북핵 해결의 이정표가 되었다. 위기 재발 위험을 앞두고 곱씹어볼 기억이다. 최근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의 동조화 현상, 함께 푼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

서주석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국방부 차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기रो에 선
한반도 평화
2

2020년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상황 논리'와 '일관된 가치' 사이 균형 필요해

+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동맹’으로 상징되는 한미관계가 전혀 없는 시점 대 위에 올라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직면하게 될 외교안보 문제 중 한미관계의 성공적인 운영은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동맹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문재인 정부에게 2020년의 시작은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 2017년 한반도 안보위기를 뒤로하고 전격 형성된 2018년 이후의 협상국면이 왜 아직까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2020년이라는 한반도 평화의 변곡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미국 역시 선제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함께 추진된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소위 ‘안보-안보 교환 모델’을 의미한다. 과거 ‘안보-경제 교환모델’로 대표되는 거래적 성격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진정한 협상태이블로 불러내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북한이 생존이라고 주장하는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생존인 ‘평화공존’을 제공하겠다는 논리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판단은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4월 위기설’, ‘7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등 온갖 위기설을 뒤로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신한 평화의 메시지와 트럼프 대통령의 예의 담판을 선호하는 전략이 결합한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 회동이 가능했고, 그 이후의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미국의 대북전략 정교하게 파악해야

한미관계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한미관계 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의식한 듯, 북한과의 협상에서 작은 성과라도 도출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로를 치켜세우는 외교적 제스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진보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북한문제의 성공적인 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협상의 성공을 위해 미국의 역할과 성과를 부각시키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다. ©연합

결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는 외교적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동맹 분담금 문제, 한미 간 정보공유 문제, 정책당국자들 간 협조체제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한다.

둘째, 돌이켜 보면 2018년 협상 국면 이후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중재자 역할이 작동한 적도 있었고 작동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8년 5월 말 최초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 신경전을 벌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소위 ‘편지 공개’를 통해 정상회담 취소를 암시한 바 있다. 당시 문제

인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긴급 회동을 자청하면서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나갔다. 또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잘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2018년 7월 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소위 ‘빈손 방북’이 불거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유엔총회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당시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대화의 불씨를 이어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은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 합의는 양보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과 안전보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북한의 입장 사이에서 좀처럼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재자 역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미국과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특히 미국의 대북전략을 정교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북잡다기함 더해질 2020년 정세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안전판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성장에 걸맞게 한미동맹의 균형점이 조금씩 이동하는 현상은 불가피한 일이다. 현재 알려진 한미 간 여러 가지 현안 역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이 맺고 있는 전 세계 여러 동맹 파트너를 상대로 진행되는 문제들이다. 작년에 매듭을 짓지 못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한 해결이 새해 들어서도 주요 안보 현안으로 남아 있지만, 워낙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는 관계로 정부로서는 '상황 논리'와 '일관된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한미관계의 긴밀한 협조 위에 북한을 비핵화라는 제도적 세팅 안에 안착 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작년 말 스티븐 비건 특사의 빈손 귀국 이후 북미 사이에 최악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미협상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가지는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만큼의 수위가 아닌 미국이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머무를 수준의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미 양측 모두 '일괄타결 + 단계적 실천'의 동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만에 하나 올 상반기 즈음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이번 회담은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 또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

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에게 초기 단계부터 로드맵 확인을 요구하는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북한 역시 최근 들어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대미 공격 수위를 높이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로 향후 답판은 일종의 불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가(배드딜, Bad Deal)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론 불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제도적 약속을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정한 단계를 밟아가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이라는 결과는 동일할 것이라는 입장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확보한 '핵무력을 동결시키고 나아가 추가 무력증강에 대한 명백한 포기 의사(연병 등의 시설 폐쇄 및 폐쇄시점 확인)'를 대가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해제요구 사항을 일정 기간 동안 조건부 승인하는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부 승인의 의미는 미래 특정 시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로드맵 합의와 미국의 적극적인 제재 해제를 교환하도록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미국의 위협만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전략적 판단 차원에서 여전히 수용 가능한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추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불만족스럽더라도 북미 간 충돌이 재현되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다시 악화일로에 이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다수 의견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국민 여론이 다시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20년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연이어 전개될 것이므로, 북미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정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은 1970년 유엔에서 승인된 NPT(핵비확산체제)가 50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국제적인 합의에 의해 5월을 전후로 하여 지난 25년(1995년~2020년) 동안 NPT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포괄적인 보고서가 작성될 전망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NPT체제 이탈국가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북한이 이러한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도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1970년 국제협약으로 자리 잡은 NPT는 매 25년을 주기로 지난 25년의 활동보고서를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NPT체제의 연장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돌이켜보면 1993년 북한에 의한 1차 북핵위기는 1995년 NPT 25년을 맞이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일종의 담대한 외교 게임이었던 것이다. 외교 경험이 많지 않았던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 25년 동안 NPT 체제는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었고 일단 가입에 서명한 국가들 중에서는 단 한 국가도 예외 없이 비확산 가치를 존중했다는 정당성이 필요했다. 북한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북미 협상의 의미 있는 '역할' 위한 외교적 지혜 모아야

또한 일단 봉합국면에 들어가는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을 포함한 다양한 갈등 역시 언제든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갈등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지 혹은 악영향을 끼치는 지를 일관된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부터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첫 평양 방문까지 모두 6차례의 북중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중국 카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본적으로 미중관계의 악화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카드를 활용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데 활용하게 만들지 혹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는 쉽게 속단기 어려운 부분이다. 과거 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에서 경험했듯이 미중갈등은 한반도게임과 미중게임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한반도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 외교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자문하게 된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선, 동경 하계올림픽, 한국의 총선 등은 어떤 형태로든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변수들이다. 지소미아 카드를 선제 사용한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구조라는 논리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한 자율적인 역할을 스스로 침해하는 상황을 경험했듯이, 북미 협상 사이에서 의미 있는 역할 창출을 위해 더욱 정교한 외교적 지혜를 모을 때다. 꼭 막힌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한미동맹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처럼 우리보다 외교전략에 투입할 외교안보 자산이 훨씬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2020년 한 해 동안 한반도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악조건을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 의미 있는 해로 기록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

박인희는 청와대 안보실 자문위원 및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고, 민화협 정책위원,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रो에 선
한반도 평화
3

북미 협상 돌파구의 시작, 일괄타결 원칙 합의와 단계적 이행

+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했다고 11월 29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리병철 당 군수 공업부 제1부부장과 함께 초대형 방사포 앞에서 서 있는 모습. ©연합

연말이 다가 오면서 북미 간 데자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치 2년 전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던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자 북한은 ‘늑다리’라는 표현으로 응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 간부들과 눈 덮인 백두산에서 말을 타고 모닥불을 피우며 항일투쟁 시절의 전의를 다짐하였다. 그리고 미국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라는 위협성 경고를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으로 응수하였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한반도를 뒤덮었던 무력 충돌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시대를 여는 것으로 환영받았다. 북미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 열리는 등 한반도평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9년에 접어들어 북미협상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미관계의 이상 징후는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기대와 달리 ‘노딜’로 마감했다. 하노이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4가지 사항(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유해송환)에 대한 후속조치를 타결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과는 합의결렬이었다.

하노이 노딜 이후 힘겨루기의 한 해

하노이 노딜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양측은 비핵화 방식, 비핵화 범위, 제재해제에 관해 입장을 달리했다. 첫째, 비핵화방식과 관련하여, 미국의 빅딜(일괄타결)과 북한의 스몰딜(단계적 이행)이 대립하였다. 미국은

단계적 해법으로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여겼다. 또한 단계적 제재완화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일단 제재를 완화하면 되돌리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은 영변핵시설 해체를 출발점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였다.

둘째, 비핵화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 미국은 모든 대량살상무기,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핵화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의 일차적 대상을 영변지역의 핵시설 폐기로 한정하였다.

셋째, 제재완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이가 컸다. 미국은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2016년 이후 실시된 5개 유엔 제재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북한은 5개 유엔제재가 일반 경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것은 제재의 일부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사실상 그것이 제재의 핵심이며 전부라고 인식하였다.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 만남이 6월 말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판문점 만남은 정식 회담은 아니었지만 양 지도자의 신뢰를 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졌다. 회동 후 2~3주내에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10월 초가 되어서야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성사되었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섬유·석탄 수출의 한시적 허용 등을 실시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태의연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

였다.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선행법은 체제보장으로 집약된다. 체제보장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체제보장은 군사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미 전략자산의 전개 중단,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배제, 신형무기의 남한 이전 중단 등을 의미한다. 외교적으로는 관계정상화, 적성국 및 테러지원국에서의 해제, 국제기구 가입 허용 등이다. 경제적으로는 경제제재 해제, 투자허용 등이다. 북한에게 체제보장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가의 보도이며 협상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북한도 체제보장이 매우 광범위하며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톡홀름회담에서 북한은 일단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실시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미국이 상응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체제보장을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완전 중단, 미 전략무기의 배치 중단, 한국의 F-35A 등 신무기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재의 일괄해제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연말까지가 협상시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에게 새로운 선행법을 거듭 요구하였다. 또한 북한은 협상 결렬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북미의 다른 선행법과 시나리오

연말 연초에 즈음하여 북한은 어떤 선행법을 계산하고 있을까?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했다. 동창리에서 미사일 엔진실험을 하는가 하면,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중대 결정을 예고하였다.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의 대강의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의 새로운 길은 대체적으로 핵역제력 강화, 자력갱생, 대중러 관계 강화 등을 의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북미대화와 새로운 길을 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고 나 홀로 가는 길을 택할지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행법도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탄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더욱이 유일한 외교적 성과로 내세웠던 북한과의 대화가 기로에 놓여 있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택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묵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대응 카드를 꺼내기도 여의치 않다. 또한 북한의 요구대로 스몰 딜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 여론으로부터 배드 딜로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북미의 선행법을 고려하면,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양측이 정면 대결을 피한 채, 적절한 수준에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서 체면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도 적절한 수준에서 압박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긴장고조 시나리오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이나 인공위성발사 등을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미국이 제재 강화, 정찰비행, 무력시위,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등으로 대응함으로써 위기가 심화되는 것이다. 위기상황이 고조된 뒤, 양측이 정면 대결을 피하고 새로운 협상의 틀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 연초는 협상을 위한 숨고르기 기간이나 새로운 판짜기를 위한 과도기가 될 수 있다.

협상모드 재개를 위한 한국의 역할

연말 연초에 교착상태의 장기화나 파국을 막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만날 것을 공개 제안한 12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육군 장병이 경의선 도로를 바리케이드로 폐쇄하고 있다. ©연합

북미 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상재개 방안을 마련하여 북미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타협안의 핵심은 양측이 일괄타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비핵화의 목표 및 단계적 이행계획을 설정하고,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별·분야별로 상응조치를 실시하는 이행계획표에 합의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 정상을 포함한 각급 외교 채널을 동원하여 북미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 단계 조치로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시기·규모의 조정, 대북제재의 부분적 완화 등

을 맞교환하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대화의 창구를 가동해야 한다. 2018년 북미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남북회담이 돌파구를 열었던 것과 같은 국면전환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특사파견 등 각종 대화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2018년 매서운 추위 속에서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열었듯이 올겨울 한파를 뚫고 한반도 평화를 재가동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박종철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화협 상임의장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만들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1998년 민화협의 탄생을 이끌어낸, 말 그대로 ‘민화협 사람’이다. 민화협이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민족화해의 한 길을 걸었듯, 그 역시 민화협의 고난과 역경, 때로 환희의 순간을 늘 함께 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사는 반드시 진보한다는 믿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의 뒤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 12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설훈 민화협 상임의장을 만났다.

- + 정리 엄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1998년 민화협 탄생부터 현재까지 늘 민화협과 함께 했다.

“1998년 민화협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다. 보수·중도·진보가 함께 모인 민화협, 남북소통과 협력의 공간이 된 민화협은 언제나 저와 국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보여주는 단체라고 생각한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오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의 길로 가는 수레의 두 바퀴 중 한축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띄우고자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시면서 민화협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진보·중도·보수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모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민간기구를 꾸리기로 결정하고 대통령님의 제안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란 이름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Q. 민화협은 남북화해는 물론 남북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을 번영의 궤도에 올려 세우는 역사적 대업이다. 민족 구성원 중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은 5천년 넘게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고 같은 언어, 문화, 풍습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이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경제강국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 대륙철도시대 물류거점지역의 미래, 평화경제의 가능성 등 지금은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남북교류로 한국경제가 활기를 띠게 된다면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다. 통일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평화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아닌가. 새로운 경제도약도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에서 길을 만들 수 있다.

보수·중도·진보 모두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천적 경험이 바로 민화협의 역사다. 21년 민화협의 역사가 곧 한반도평화변영과 통일을 위해 온 국민을 단결시키는 비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민화협을 만들기 위해 진보·중도·보수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정당 측으로는 제가, 야당 대표로 제정구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실장, 박철언 자민련 부총재, 진보 측에서는 경실련 등이 협의했다. 처음에는 견해차가 있었지만 결국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갈 수 있었다. ‘민화협’의 풍부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한반도 평화통일을 둘러싼 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미대화 물꼬 우리가 터야 한다

Q. 한반도 정세가 어지럽다. 미중갈등, 한일갈등, 북미갈등이 서로 얽혀 있다. 새해를 앞둔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전자로 다시 한 번 나서야 한다. 지난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의 가교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남북·북미간 대화 국면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가 시발점이었다.

지금 미국 주요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한반도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북미, 남북 간에 정체가 있다고 본다. 최근 발간된 <트럼프와 장군들: 혼돈의 비용>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서울이 왜 저렇게 북한과 가깝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담

겨 있다. 한국 수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던 인물이 지금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금강산 노후 시설 정비, 백두산·평양·개성·금강산·원산지역 개별관광 전면 확대, 2024년 동계 청소년올림픽 및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한·중·러 등 동북아 국가 간 화물철도 운영을 위한 ‘동북아 공동화차’ 등 남북관계를 돌파할 방안을 가지고 북한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북미대화의 물꼬를 우리가 터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그동안 남북문제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우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국회비준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변영과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합의였던 6·15선언과 10·4선언이 정부가 바뀌자마자 휴지 조각이 되어 10년 동안 남북관계는 정체되고 악화되기만 했다. 남북합의의 국회비준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합의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남북신뢰가 더 굳건해질 수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가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남북정상회담의 국회비준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남북 모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냉전시대의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가오는 평화통일의 시대를 위해서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국회회담을 계기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야 한다. 2018년 3월 지자체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기존의 법률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남북교류협력을 제약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자체 남북협력시대를 열고자 함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 교류가 대폭 확대되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남북교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얼마 전 직접 금강산 관광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국회가 남북관계의 위기를 먼저 돌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현대적인 온천관광, 치료관광, 삼지연·백두산 관광, 원산·갈마 해안관광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8년 금강산관광이 처음 시작할 때,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그때 현직 국회의원이 금강산을 다녀온다면 국민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야당이었지만 금강산 관광에 의지가 있었던 한나라당 박종용 의원에게 제안해 함께 배를 타고 금강산을 다녀왔다.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점점 바뀌게 되었다. 지금 유엔 제재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관광을 밀어붙여 성사된다면 이를 계기로 남북교류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별관광을 신청하고 이를 계기로 북측에 초청장을 적극 요청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화협, 통일의 다리 되어 평화의 한반도 만들어주길

Q. 민간통일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민화협이 더욱 힘써야



지난 2018년 11월 4일 남북민화협 공동행사를 위해 금강산을 찾은 설훈 위원이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좌), 김영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회장(가운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할 과제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1999년 민화협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결의안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시킨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부터 2018년 평양공동선언까지 남북합의를 이행하고 실천하는 데 역시 민화협의 역할이 컸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온 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족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민화협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민화협이 함께 강제징용 피해자 유골을 가족 품으로 보내드리는 사업을 했던 것은 정말 의미가 컸다. 과거사청산은 남북 모두의 문제다. 남북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 걸려있는 강제동원 문제와 대일과 거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민화협 등 100여개의 단체들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를 꾸려 국민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힘이 모이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꼭 풀릴 것이라 믿는다.”

Q. 2020년을 앞두고 있다. 새해 응원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작년까지만 해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이 차 넘쳤던 한반도였다. 지금 남북, 북미대화가 중단되면서 어려운 국면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어려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곧 평화의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역사는 반드시 진보하기 때문이다. 분단 70년이 넘었지만,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온 날은 5천 년이다. 우리 민족이 죽지 않는 한 통일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 믿는다. 정부, 국회, 국민의 힘을 모아 평화의 한반도,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편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민화협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통일의 다리가 되어 평화 변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늘 그랬듯 함께 하겠다.” 🌈



•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민화협 상임의장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분단과 남북의 오랜 군사적 대립은 항상 이를 위협해왔다.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을 이뤄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김세연 민화협 상임의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간 인도적 지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는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인권과 복지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 온 김세연 상임의장. 지난 12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실에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 정리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Q. 올해부터 상임의장직을 맡아 민화협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민화협은 199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실제 참여하면서 민화협 구성원들과 회원단체들이 간직해 온 민족화해와 평화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역사, 문화, 한반도 생태 등 민간교류사업은 통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이익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화협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Q.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문제, 북한문제는 늘 남남갈등의 주 원인이 되어왔다.

“2017년 말 아테나워재단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해 ‘냉전시절 동서독 간 스포츠 외교가 독일 통일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올림픽 공동선수단 구성을 비롯해 다양한 스포츠 협력이 동서독 간 상호이해와 나아가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었다. 보수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외교안보적 관점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외교안보 측면에서 현 정부가 너무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 스포츠, 인도지원 등의 교류와 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주된 경계선 중 하나가 북한인권 문제다. 잣대를 하나로 가져가면 좋겠다. 민족통합의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북한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으로 바라볼 순 없다. 통일의 파트

너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북한인권 문제 역시 우리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가졌던 문제의 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남남갈등의 골이 조금씩 메워지지 않을까. 서로의 시각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양극단에 있는 이들이 일방주의적 시각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제가 보수정당 소속임에도 민화협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대립과 반목 구도를 풀어나가는데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남갈등의 해소를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하고 싶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

Q. 2019년 말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기존 패권과 새로운 패권이 충돌할 때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역사가 가르쳐준 경고다. 현재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그러하듯, 첨예한 패권 다툼 속에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분단 상태에서 군사적 대립을 지속하는 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에 평화적인 통일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 자체는 결과와 무관하게 인정한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자. 북한의 도발은 점점 더 늘어나고 북미 간 긴장 상태도 고조되고 있다. 원 위치가 아니라 더 후퇴한 모양새다. 한중관계 역시 어렵다.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한미동



맹의 훼손을 무릅쓰고 중국에서 진행된 전승절 기념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의 태도를 보면 한중관계는 항상 후순위로 놓인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빌미로 우리를 압박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이라는 안보 기틀 위에서 가능했다.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 미국에서 트럼프처럼 상업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대통령이 집권하니 주한미군도 거래 대상으로 전략했다. 누구도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과감한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국방력 강화 그리고 대등한 관계에서의 한미동맹 등이 해법이 될 것

이다.”

Q.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 문제에 있어 국회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결의안은 여야합의로 여러 차례 채택되어 왔다. 하지만 그 외 거의 모든 사안들은 정파적 대립이 극심하여 어떤 이슈든지 국회 논의구조로 들어오면 원만한 합의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어찌 보면 대통령제가 가져온 극단적이고 만성적인 정파적 대립구조의 한계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이 극복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Q.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복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는데,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철학은 무엇인가.

“2008년 국회에 들어와 대표 발의한 첫 법안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미등록외국인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배정되어 입학한 후에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중학교는 학교에서 거부하여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한 학습능력의 차이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도 많았다.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학교에서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를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교육부에서 시행령으로 풀겠다고 해서 최종 통과까지는 되지 않았다.

어떤 공동체든 주류는 비주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때문에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항상 소수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 봐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조선의원 시절 다문화와 탈북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다행히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다문화 출신,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신 바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항상 우리 사회 누구에게나 필요한 관점이라 생각하고 있다. 지난 11월 말 우리나라는 탄자니아에 4차 병원, 즉 제일 풀기 어려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을 유·무상 원조를 통해 최초로 설립했다. 최근 그 현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 그때 우리 옆에 있는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환경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국내 여러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이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역사적 정기 바로 세우는데 남북이 힘을 모으자

Q. 민화협은 올해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송환사업을 북한과 협력하여 진행한 바 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

한 생각과 함께 새해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19대 국회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당시 일본의 식민사관, 중국의 동북공정이 양쪽에서 협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곧 역사적 실체를 바꾸는 것과 다름없었다. 당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계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일부 잘못된 사관들이 존재함을 깨달았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있었다.

한편 북한의 원래 사관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지금 위치가 아니라 여러 사서들을 통해 요동반도에 있었다는 쪽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문헌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거의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북한이 평양 정통성을 가져오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 안타까운 부분이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유해송환사업 역시 남북이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 이렇듯 주변국가들로부터 제기되는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노력과 인도적 활동에 있어서 북한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고 큰 틀에서 남북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평화를 위한 진정성과 노력은 평가하지만 자칫 굴종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진정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의해 좌우되지 않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전쟁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는 번영을 꿈꿀 수 없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주적인 국방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2020
미중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색

한국의 중견국 외교 실현과 성숙한 한중관계로 한반도 신 냉전구도 깨뜨릴 수 있어

2019년은 미중 전략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의 생존을 심각히 고민하게 만들었던 해였다. 미중의 갈등과 경쟁은 단지 한 두해로 끝나지 않을 구조적이고 양 국가의 역량이 맞부딪치는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민족화해> 102호에서는 2020년 역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미중관계를 냉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생존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대담은 12월 11일 민화협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 정리 김선규 1020통일공감기자단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사회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대담
박동훈
중국 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



대담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사회자 올해는 1992년 8월 한중이 수교를 맺은 지 27주년이다. 27년 한중관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흥규 한중수교를 맺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둘째,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세계로부터 고립되고, 동구권 붕괴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중국의 자각. 셋째, 당시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외교, 즉 미일 중심의 해양세력을 넘어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이다.

수교를 맺을 당시 한중 모두 서로를 적극 필요로 했고, 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중 간 가치사슬이 있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 외교안보나 역사문제의 갈등이 존재해왔지만, 한중관계는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하며 “우호협력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그간 한중관계는 허니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 관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국가 정체성을 개발도상국에서 강대국으로 변화하면서, 한중 간 허니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이 새로운 세계전략을 대담하게 추진하고, 자신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과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한 갈등은 2017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로 터져 나왔다. 당시 한중 모두 보완적인 가치사슬 관계를 가져왔기에 파국을 맞지 않는 제한된 갈등을 겪었다면, 현재는 본격적인 ‘도전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도전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분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며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한국이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 둘째,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게 민감한 군사안보분야에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한중 간 가치 사슬

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가치사슬 붕괴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도전이라고 보인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한중 간 상호보완적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지혜롭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 그 기로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박동훈 한중 수교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는 한중관계를 두고 “주변국 외교의 기적”이라 평가했다. 중국 외교사에서 한중관계처럼 짧은 기간에 인적교류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급속 성장하며 양자가 가까워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중관계 발전 동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 다소 우려스럽다. 한중수교 초창기에는 유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요소가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을 이루었고, 그 이후로는 경제협력 분야가 양자 관계의 주춧돌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한중 간 상호보완적 경험 구도가 경쟁관계로 변해가는 추세다. 또한 안보분야에서 한중관계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후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미외교 50%’를 주장하면서 중국 학계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기류가 등장했고, 이에 북한문제가 함께 엮이면서 한중관계는 삐걱거리는 상황으로 갔다.

한중수교 27년을 맞이했다. 사람으로 보면 성장기를 멈춘 때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보다 내실 있고 성숙된 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국 모두에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중국, “경쟁은 하되, 파국까지는 가지 않는다(斗而不破)”

사회자 한중 관계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북핵 문제와 미중 전략경쟁구조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현재 한중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가?

김흥규 전략적 경쟁의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략적 경쟁’ 개념을 처음 사용하며 규정한 것은 미국이다. 그러한 미국의 규정을 중국은 초기에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제는 현실로 인정하고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략적 경쟁은 트럼프의 등장 때문이라기보다는 미중 간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역량에서 경쟁이 지속, 심화되면서 잠재적으로 세력전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그동안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점과 중국의 발전이 미국과 유사한 문화, 사회, 가치, 정치제도에 수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중국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국내외 요인으로 현재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 타협으로 해소되기 보단 훨씬 더 구조적이며, 국가 역량 변화라는 대전환 요소를 담고 있다.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의 행보는 최근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잘 대변한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의 주변국을 모두 동원해, ‘중국 대 나머지 국가’ 구도로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에 중국도 지난 9월 중앙당교연설에서 중국도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겨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당분간 미중 전략경쟁은 전반적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특히 과학기술분야와 군사안보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체제적 갈등, 경쟁모습을

보이고 있어, ‘신냉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동훈 중국 학계는 “백년간 직면하지 못했던 대변화(百年未有之大变局)”라 평가한다. 중미관계가 양적이 아닌 질적, 구조적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기존 포용적 견제(hedging) 전략에서 ‘견제와 대립’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중국을 간주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그간 중미 합의를 깨고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보는 대만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미 전략경쟁은 과거 미소 냉전구도와는 다르다. 중미 갈등이 국제질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패권국과 기존 질서에 불만을 지닌 도전국가 간 갈등으로 묘사되는 성향이 있지만 실제 내용이 이와 크게 다르다. 현재 자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국제질서를 스스로 깨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오히려 중국은 그 질서 내 수혜국으로 현재 질서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전국가가 현재 질서에 반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다자협력,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창하면서 대외협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면에서 중국이 우세하다고 본다.

물론 중미관계는 이제 과거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대비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각 분야마다 미중 격차는 크다. 따라서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경쟁은 하되, 파국의 상태로까지는 가지 않는다(斗而不破)”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의 견제전략에 대응은 하되 신냉전체제 초래 또는 극단의 상황으로까지 치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글로벌 사회에서 중미 간 연합적 게임은 결국 양자 모두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핵심이익을 지키는 전제하에 협력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국 내의 보편적 시각이다.

한국, 양자택일 조급증 내려놓고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사회자 우리가 미중 전략경쟁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우려되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가장 뚜렷한 현상은 경제와 안보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안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지난 2017년 사드배치와 최근 미국이 한국을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 언급한 것이 그렇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기조를 갖고 대응해야 하는가?

김흥규 현 정부는 미중 간 경쟁을 남북협력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미중 전략경쟁 가속

화로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핵심인 핵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미중의, 한반도 문제 해결 그 자체 보다는 그들의 경쟁 속에서 남북과 한반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으로, 현 정부의 기본 전제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다.

한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미중 전략경쟁이 완만한 구도로, 서로 게임의 규칙을 찾아가길 희망한다. 하지만 현재 그보다 훨씬 급격하게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와 안보분야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직접 대립의 양상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심지어는 연미화중(聯美和中·미국과 연대, 중국과 친화) 전략도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해야 하는가. 확실한 사실은 미중 모두 전략경쟁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유럽 역시 미중 갈등의 전개

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조급증을 내려놓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원칙을 세우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리하면 너무 조급하게 선택의 압력에 빠지지 말고 신중히 우리의 내적역량을 키우되, 북핵 위협에 대한 안보역량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피하면서, 제3의 가치사슬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각자도생을 고민하는 국가들, 즉 'situation-minded country(상황이 유사하다고 느끼는 국가들)'가 모여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도, 미중 전략경쟁의 거대한 회오리 속에서 생존공간이 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 중국 향한 지나친 비판적 관점 지양해야

사회자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경제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북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다. 최근 몇 년 사이 북중 정상회담이 3차례 진행되면서, 북중관계도 많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전략경쟁 속 중국은 현재 한국의 반응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 어떤 접근법을 갖고 있는가?

박동훈 한국 학계와 언론이 바라보는 중미 경쟁은 너무나 비판적이지 않나 싶다. 한국에서는 화웨이 등 중국 굴지기업 도산론, 중국경제 위기론 등 어찌 보면 중국의 참담한 패배를 예견하는 듯한 평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부터 중국은 줄곧 '붕괴론', '위기론', '위협론'에 휩싸여 왔다. 현재 또 다시 '위기론'이 등장한 것이다. 심지어 학계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고 있다.



냉전구도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한중이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여전히 존재한다. 신냉전구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관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한중 모두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미 전략경쟁을 너무 비판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 이론적으로 중미갈등이 구조적으로 점차 심화될 수 있지만, 상호 타협과 이익을 교환하는 가능성까지 선불리 배제하면 안 된다. 앞서 밝혔듯 중국은 현재 중미갈등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중국은 지난 1990년대의 일본이 아니다. 또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15억 내수시장의 저력을 갖고 있고, 중국기업들도 자주적 기술개발을 위해 심기일전하고 있다. 중국외교의 전통적 유연성을 발휘하며 중미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어 일본보다 강하다. 중미갈등을 비판적으로만 접근하면 결국 양자택일의 선택논리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한반도 문제 또는 남북 양자와의 관계에서 중국은 어찌 보면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남북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북한 <로동신문>의 대 중국관련 기사를 분석해보니, 중국 관련 보도가 급격히 줄어든 시점이 2014년 7월이었다.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한 시점으로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음을 보여준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중 어느 한쪽과 중국의 관계 밀착은 다른 한쪽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북중관계가 가까워지면 남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듯,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면 북한 역시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에 있어 한중은 모두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다.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면 북한이 느끼는 고립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남북관계가 안 좋을수록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계를 떨 수밖에 없다. 중국이 북한과는 정치관계, 남한과는 경제관계에 편중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국면의 고착은 중국에 유리한 면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중국의 입장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핵심이익, 생존과 관련된 원칙에 우리만의 목소리 내야

사회자 현재 한미동맹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남중국해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여 유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안보적 차원에서 미국의 요구는 우리에게 상당히 곤란하게 다가온다.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거부감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하는가?

김홍규 한미동맹은 양자동맹 역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이다. 70년 가까이 동맹을 유지하는 것도 국제정치 역사상 드문 일이다. 그만큼 동맹을 통해 가치, 문화, 정치, 제도, 교육, 군사, 경제 등 전방위적 협력으로, 세계무대에서 가장 약소국이었던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지키고 경제적으로 부상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성공적 전환을 한 국가가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이란 결국 한국의 국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 차원에서 한국은 생존과 관련된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행태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대 한반도 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대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맹이다. 최근 들어 미중 경쟁 속에서 지역동맹화가 되어갔고, 중국을 향해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며, 그렇게 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한국의 핵심이익에 위반된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군사행동과 동맹 구조를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야 한다. 둘째, 미중이 북한의 핵무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다.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되면 국제정치 본질상 한국은 힘의 불균형을 받아들이며, 계속 안보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국 스스로 안전보장에 관한 직접 동의 없이 북한의 핵무장을 미중이 절충 합의, 타협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드시 거부 의사를 보여야 한다.

셋째, 중국이 일방적으로 유엔제재를 넘어 북한을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우리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처럼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무역 국가,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인 국가이면서, 중견국가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국가다. 현재 처한 조건 속에서 우리의 핵심이익과 생존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한다.

사회자 한중 간 최대 핵심 사안은 바로 사드배치 문제다. 한국은 사드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말한다. 반면 중국은 사드가 철수되기 전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입장이다.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사드문제, 어떻

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박동훈 사드문제는 “해결”이 아닌 “봉합”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 현 정부는 2017년 11월 ‘3불 약속(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며 ‘해결’됐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내에서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한국의 사드배치 당시 중국이 느꼈던 충격은 컸다. 2017년 중국은 ‘4월 위기설’이라 해서 북한의 태양절(4월 15일)과 건군절(4월 25일) 전후로 추가적인 군사 도발에 대해 초긴장상태에 있었다. 북한의 큰 도발 없이 4월 말로 향하던 중, 한국에서 사드배치가 4월 26일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탄핵국면으로 정치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당국 간 대화에서 사드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는 입장을 공유했기에 충격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 되어버리고 말았다.

중국은 물론 사드 철수를 바란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협조 없이는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미국은 발전하는 한중관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췌기전략’을 전개했고 한국은 내부적 정치 혼란 속에서도 말려들었다. 중국 시각에서 사드배치가 한국의 어느 정권에서 결정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미국의 안보전략적 필요에 따라 ‘한국’이 배치를 허용했다. 사드기지 환경평가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일 3국 사드 연동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MD체계 구축을 위해 ‘사드’라는 카드를 또 다시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애초 사드는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집했던 한국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사드 문제는 ‘해결’이 아닌 제2차 위기를 맞이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 진정한 중견국의 역량 갖춰야

사회자 동북아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자주의에 입각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질서를 함께 만들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동북아가 충돌할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김흥규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가마다 바람직한 이상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글의 세계와 같은 국제관계의 속성을 반영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택할 바람직한 방향은 북한의 무력행위에 대응 가능한 안보 역량과 군사적 지휘권을 갖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한 국방개혁20의 기본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남북관계 상황과 별개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중견국 외교의 진정한 실현이 관건이다. 중견국 외교의 핵심은 외교적 자율성 확대와 그럴만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와, 자신을 지켜낼 안보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다. 현실적으로 남북은 대항적 공존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런 대항 속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룩할 수 있어야 서로 평화 공존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남북관계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편승외교, 동맹외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하고 있다.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앞서 논의했던 주요 사안의 중요성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한 국방개혁2.0의 기본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남북관계 상황과 별개로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 공감을 넓히면서, 우리의 생존공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박동훈 2019년 12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미 무역협정의와 북미 비핵화 협상도 있지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 간 존재하는 갈등에서 미국은 일본에 손을 들었다. 미국은 강제동원 문제나 무역규제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소미아 문제만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비대칭 구도에서 자율성의 한계를 노정시켰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에 손을 들었을까. 좁게는 한·미·일 삼각동맹체계를 공고화하고, 넓게는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냉전구도를 구축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미국은 현재 ‘자유 대 억압’이라는 프레임을 그리며 공공연히 중국을 자신의 경쟁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해왔다. 이 전략에서 일본은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3각 동맹체계 구축의 코너 스톤(Conner stone)으로, 한국은 동북아의 린치핀(Linchpin)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과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소미아를 보다 높은 수준의 한·미·일 정보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고위관료들이 지소미아 종료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 속내를 비친 것도 바로 이를 설명해준다. 즉 지소미아 문제는 단지 지소미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미국은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틀 속에서 ‘한국 비틀기’에 나섰으며, 한국의 자율성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한미동맹체계에서 한국의 자율성 한계는 궁극적으로 북미대화에서 한국의 대미설득 한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졌단 발언을 하고 있는데, 북미 대화를 동결시킨 상황에서 ‘위성 발사’, SLBM 등 미국 본토 타격 수단 다양화에 집중하면서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성’을 다시 한 번 높여려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내부를 다지는 동시에 제재의 틈새를 파고들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으로 경제 안정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의 대중견제 속에서 남북이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면서 한반도는 신냉전구도의 틀 속에 갇혀 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중 두 나라 시각에서 보았을 때 냉전구도의 형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면서도 중미관계가 파국까지 심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동북아에서의 다자협력 틀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다자협력 틀 내에서 국가 비전을 찾고자 한다. 즉 냉전구도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한중이 하나의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여전히 존재한다. 신냉전구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중관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한중 모두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통
일
사
를
일
구
는
들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플랫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진정한 존재 가치입니다”

- + 정리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9·19공동선언에서 밝힌 ‘민족공동번영과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이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이 우리 협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되돌릴 수 없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에 걸맞은 우리의 자세다.” 23년 간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에서 남북공인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해온 강영식 전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지난 9월부터 정부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이하 협회) 회장으로 취임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 민간이 아닌 정부의 영역에서 그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지난 12월 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협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9년 12월 현재 남북관계는 또 다시 시계제로의 모습이다.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공동번영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던 남북의 합의가 무색한 지금이다. 불과 1년 여 사이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2020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랫동안 민간통일운동에 헌신했던 강영식 회장은 우리가 ‘과거와 달라진,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여전히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국가전략노선이 바뀌었다. 그들이 경제발전을 국가전략노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북한에 요구했던 ‘현대국가화’, ‘개혁·개방’에 한층 더 다가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협력을 기대했다.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것이 무엇인가?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균형발전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시각으로만 접근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한반도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거기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는 비핵화 문제를 강하게 연동시켜버렸다. 북한은 힘들게 결정한 국가전략노선 전환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의 상대로서 우리를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정치, 군사 아젠다 뿐이었다. 최근엔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는 군사 합의마저 흔들린다. 우리는 위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역지사지로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방증비 문제로 지난 해 맺은 두 차례의 합의를 우리가 먼저 위반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선언적으로는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것엔 빈약하지 않았는지, 또 북한을 과거처럼 관리의 대상, 정치적 안정화의 대상으로만 보진 않았는지, 돌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화,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시작

쉽지 않은 시기에 협회의 장을 맡게 되었다. 협회

는 정부의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 특히 실무지원을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역할이다. 애초 협회는 2007년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북한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남북 관계의 악화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이후, 통일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강영식 회장은 지난 10년 간 협회가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제 '남북 교류협력의 플랫폼'이라는 협회 본래의 가치를 확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한다. 남북이 합의한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협회의 비전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의 역할, 즉 민간 및 지자체의 대북사업 진출을 돕고 컨설팅해주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다. 최근 협회 내에 남북교류협력종합상담센터를 설립했고, 유엔 대북제재나 대북지원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해 민간이 보다 수월하게 경험사업이나 대북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더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남북은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한 교류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제도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건의하고 결국 이를 위한 민관의 협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남북교류협력의 플랫폼으로서의 협회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그는 오랜 민간통일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안정성과 전문성 그리고 민간의 창발성과 도전정신이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 민관협치적 성격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는 달리 막상 협회에 들어와

보니, 구성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놀라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다. 다만 공공기관 성격상 주어진 예산으로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강 회장은 그 '주어진 일' 자체를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관협치의 플랫폼이라고 믿고 있다.

남북이 함께 한반도 개발을 설계하고 추진하자

그동안 강영식 회장은 2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실상 남북이 활발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했던 시간은 10여 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시 10여 년 동안 그 문은 닫혀 있었다. 지난 20여 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 그가 생각하는 남북교류협력의 미래는 무엇일까. 가다 서다를 반복해 온 남북교류협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화가 중요하다. 강 회장은 이를 위해서 먼저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통신이 보장되는 3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북을 단순한 수혜자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함께 하는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협력자의 입장에서 상호 책임성을 갖도록 '남북 공동개발'을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른 바 '한반도 공동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공동 개발기구'로서 '인터코리아 코이카(Inter-KOREA Cooperation Agency)를 제안한 배경이다.

“북한과 함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코리아 코이카는 남북이 함께 만드는 조직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 개발을 위해 수백명의 전문가와

각 지역 실무자들을 구성한다. 사무소는 평양이나 서울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이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남북이 합의한 균형발전이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이를테면 민화협, 북민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등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의 연합기구로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정부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저는 민간이 주도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제 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한다. 이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할지 정부를 비롯해 민간단체들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에 하고 싶다.”

9·19정신에 부합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이밖에도 강영식 회장은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인 3통의 보장과 관련해 남북공동 CIQ(출입경사무소)를 제안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각각 CIQ를 만들어 파주 도라산에서 출경해 얼마 안가 개성에서 다시 철차를 거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공동검역, 공동통관, 공동 입·출경을 하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일하고, 서로가 갈등을 직접 조정하면서 통합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3통이다. 3통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교류개발협력이 가능하다.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남북이 공동으로 조직을 만들어 운영했던 사업들은 남북관계가 어려워져도 비교적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다. 공동기구화, 제도화의 힘이다. 개성공단이 그랬고,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사업이 그랬다. 결국 남북이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걸맞은 교류협력사업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도화, 남북공동기구화,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할 3통 보장이 우리가 이야기한 핵심 플랫폼으로서 협회가 해야 할 일이다. 당장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도 없다. 9·19 공동성명이 합의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이 진정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대답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 교류협력과 관련한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실무 지원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강영식 회장은 스스로 시민사회 회활동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애정 어린 당부도 잊지 않았다.

“분단체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남북관계는 정치·군사적 문제가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은 언제나 여러 한계와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물론 정부가 정치·군사적 문제를 제외한 사회문화, 대북지원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분권형 대북정책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민간 역시 기존의 일방향적인 지원이나 시혜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활동이 지금 이 시대에 걸맞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맞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에 실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정부와 민간이 모두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저는 항상 시민사회활동가였음을 잊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또 아무리 어렵다 해도 시민사회가 배제된 관계 발전이나 나아가 통일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 협회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한 뒤 돌아가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NETWORK

1 2019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하윤수 민화협 상임의장 등 15명 포상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 편집부



지난 11월 25일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2019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민화협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15명이 통일운동 및 통일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전수식은 통일 의지 결집, 통일 정책 홍보, 교류 협력, 통일 연구 등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통일운동 유공자를 선정하여 자긍심과 명예를 진작하기 위해 열렸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홍조근정훈장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국민포장

- 김정수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김정호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체육교류위원장
- 손종도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국장

대통령표창

- 윤기종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
-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조남훈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 김성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원 단장

국무총리표창

- 김종진 (사)남북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
- 강용태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총무국장
- 조민행 (사)희망래일 이사
- 최대혁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기획관리팀장
- 이상현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
- 정광태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통일공감포럼 사무총장



2

2019년 제17회 민족화해상 시상식

민간교류 부문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통일준비 부문 '진천규 통일TV대표' 수여

+ 편집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걸)와 경향신문사(사장 이동현)가 주최하는 『제17회 민족화해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시상식에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이동현 경향신문사 사장, 류종열 민족화해상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족화해 심사위원회,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 김기옥(진천규 통일TV 대표 수상 대리인)씨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를 나눴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그린닥터스와 진천규 대표님의 수상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며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에게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민화협도 그 노력에 늘 함께 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동현 경향신문사 사장은 “예측 불가능한 남북관계 속에서도 꾸준하고 묵묵히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을 올해에도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수상자를 격려했다.

류종열 심사위원장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협력병원을 운영

하며 남북 의료협력과 대북 의료지원 활동을 오랜 기간 펼친 그린닥터스와 꾸준한 방북취재를 통해 북녘의 모습을 알리며 남북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 노력한 진천규 대표의 활동이 민족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 기반을 확대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근 그린닥터스 이사장은 “8년 간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재개원을 위해 노력했던 노고를 인정해주어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남북의 평화번영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진천규 통일TV대표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상대를 왜곡 없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민족화해상 수상 이후로도 그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영상으로 소감을 전달했다.

한편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민족화해상은 2003년에 제정되어 민족의 화해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며 모범사례를 확산해 민족화해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함께 만드는 평화, 모두가 행복한 통일”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

+ 송정환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재단

“민화협은 ‘함께 만드는 평화,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함께’와 ‘모두’는 남북을 뛰어 넘어 우리 민족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어 가자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제2, 제3의 민화협이 들불처럼 타오를 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이 후원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열렸다. 11월 13일 오후 5시,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는 지난 21년 간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서호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정계인사와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을 포함한 통일운동 시민사회계와 민화협 회원단체, 그리고 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한 현 민화협 상임의장단(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하운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공동의장단 등 민화협 식구들이 참석했다.

환영사에서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갈 것을 다짐했다. 지

난 1년 간 민화협의 행보를 소개하며, 앞으로 “어둡고도 긴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축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서호 통일부 차관이 축전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완성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고 행동할 때다. 그만큼 국민의 폭넓은 공감과 합의를 위한 민화협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며, “민화협이 쌓아온 역량과 저력이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 믿는다”고 축하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영상으로 “지난 21년간 남북 민간교류와 민족화해의 선구자였던 민화협이 ‘함께 만드는 평화,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만들기 위해 더욱 애써주길 바란다”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민화협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합을 위해 애써온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감사패는 후원인으로는 김경자 씨와 김병태 씨에게, 후원단체로는 (사)기쁜소식과 (주)홈앤쇼핑이 수여했다. 이어 팝 소프라노 한아름 씨의 축하 공연으로 민화협 후원의 날은 더욱 풍성해졌고, 기념 떡 커팅식과 만찬으로 지난 민화협 역사를 회고하며 미래 청사진을 함께 나눴다. 🍵



1. “함께 만드는 평화, 모두가 행복한 통일”
2. 민화협 21돐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민화협 회원단체와 정재계 인사.
3. 민화협 주요 내빈과 함께한 기념 떡 커팅식.
4. 개회를 알리는 민화협 후원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민화협 창립 21주년 기념 후원의 날

함께 만드는 평화
모두가 행복한 통일

2019. 11. 13(수) 오후 5시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



민화협 정책위원회 통일정책포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어디까지 왔나”

+ 이정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주관한 통일정책포럼이 지난 11월 19일 오후 2시 30분 사랑의열매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올해 하반기 한반도 정세 최대 이슈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주요 국가의 현재를 진단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통일부 차관을 역임한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그리고 김성민 정책위원장과 황재욱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민화협 정책위원 및 회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나눴다.

김홍걸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한반도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대표상임의장은 신한반도 체제는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평화협력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간의 끈끈한 연대와 강력한 힘을 한데 모아, 평화를 위한 만남의 장을 민간차원에서 남북이 함께 만들겠다”고 전했다.

축사에서 홍양호 원장은 엄중한 현 한반도 정세를 우려했다. 홍 원장은 “현재 북미대화가 얼어붙은 상



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까지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거시적인 청사진도 좋지만, 지금은 한반도 정세를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화협의 창립취지에 따라, “민화협이 각계각층과 좌우를 아우르며 국민의 단합된 평화 의지를 한데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포럼은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1세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남·북·미의 역할은’, 2세션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주변국의 시각은’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1세션 첫 발표는 “북미회담,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줄다리기”를 주제로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 교수가 맡았다. 조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이 희망하는 대북제재의 조기 해제와 미국이 원하는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 위협의 조기 제거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까지 무력도발 자제와 북미 실무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제재 완화가 바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어 ‘창의적인 해법’

으로, 해제한 핵을 북한 내부에 보관하는 방안 등 북한이 취해야 하는 비핵화 조치에 일정한 가역성을 부여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제재완화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역할과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재완화가 비핵화의 상응대가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비핵화 합의와 진전에 따라 제재완화가 이뤄진다. 반면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과 협력이 본격화되면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심에 한국이 중요한 축을 떠맡을 수 있다. 하지만 안전보장을 선 상응대가로 설정할 경우 한국의 활동영역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북미 비핵화 대화 속에서, 남북관계와 우리의 역할은”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 “지금 북핵대화에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복원”이라며 “북한은 핵탄두 몇 개를 중국으로 반출하고, 한국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시설 철거와 신규 건설을 즉각 시작하며 남·북·미는 종전선언을 합의, 실행하자”고 제안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에는 ‘동북아 지역 내 모든 행위자들의 공동(다차원적)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이 미중 갈등 심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갈등-협력 공존’에 있는 관계로 동북아 안보대화채널 등장 자체는 미중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 모두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평화정착의 전환점으로 활용하는 우리의 외교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세션에서는 “비핵화와 한일관계 : 불신과 갈등의

불협화음”을 주제로 신정화 동서대 국제관계학전공 교수가 발표했다. 지금의 아베정권은 한국을 더 이상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나라’로 인지하고 있지 않기에, “북한을 한국의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과 남북 평화체제를 고려한 전략이 요구되는 때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향후 진전될 북미정상회담과 2020년 도쿄올림픽의 변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대화 진전에 따른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이 성사된다면, 남북과 일본이 공동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변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미중 전략전쟁과 남·북·중의 대응”을 주제로,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 실현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과거 냉전과 같은 구도로 갈 경우, 한국이나 북한 모두 각자도생의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점점 양분화 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은 성급한 편향성보다는 신중한 복합균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 박동훈 중국 연변대학 국제정치연구소장이 발언했다. 박 소장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선택을 받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한중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견국가로 역량을 충분히 지닌 한국을 향해, “외교적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현재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정세를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한국만의 목소리를 낸다면 중국과 보다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

민화협 지역 대화 <2019 인천민족화해포럼>

“평화 미래 도시, 100년을 여는 인천”

+ 권성우 민화협 1020 통일공감기자단



지난 11월 22일(금) 오후 6시, 인천광역시청에서 <민화협 지역대화 - 2019 인천민족화해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하고 통일민주협의회가 주관하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주최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2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민화협은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확대를 위해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지역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민족의 첫 해외이주 시발지인 인천에서 ‘평화 미래 도시, 100년을 여는 인천’을 주제로 자리가 마련되었다. 포럼은 화해사진전과 화해포토존, 북한 음식 체험으로 이루어진 ‘여는 마당’으로 행사의 막을 올렸다. 화해사진전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만들어낸 남북교류의 모습이 담긴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었고, 북한의 ‘속도전떡’과 ‘짜땀’ 체험 등 음식을 통한 남북 화해의 장도 함께 진행되었다.

본 포럼에 앞서 개최식에서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은 인천에서 있었던 남북 간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 인천의 현재를 통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이강일 통일민주협의회 상임대표의 환영사,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새터민으로 구성된 통일한울합창단과 인천 5·3합창단이 남과 북의 고향 노래를 바꾸어 부르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해 청중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천이 열자

인천민족화해포럼은 김재용 변호사(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의 사회로 박영일 인하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박 교수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분단의 경계선상에서 대결과 긴장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해온 인천 시민과 함께 우리가 놓인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지지와 여론의 변화에 힘입은 것”이라며 민주화된 시민과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역할과 임무는 시민사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대결의 폐해와 혜택이 집중되는 인천의 시민사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인천 지역사회의 중요성과 함께 주도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 <2019 인천민족화해포럼>은 인천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 식전행사로 무대에 오른 인천 5·3합창단이 열창하고 있다.

한편 토론을 맡은 이창희 단국대학교 외래교수는 현재 세계적인 도시 송도의 탄생, 세계적 공항을 지닌 영종도의 발전과 함께, 서해교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이라는 분단의 갈등이 지속되는 모순 속에서, 평화도시 인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은 지자체가 평화도시를 표방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의지는 강했으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로 빠지며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현실에서 가능한 사업을 신중하게 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강춘근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걸려도 남북이 함께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

서는 남북화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북 화해의 관점에서 현 상황을 바라볼 것을 권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지역 청년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임정현 인천대학교 학생은 젊은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2019 인천민족화해포럼>은 민화협-지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을 통해 민화협 운동과 지역 내의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기반 확산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의 주관단체로, 24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화통일 운동을 묵묵히 수행해 온 통일민주협의회 임원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



그래도 우리의 선택은 평화여야 한다

+ 김민지 KBS 보도국 통일외교부 기자



내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어렸을 때 이사와 지금까지 쪽 살고 있는 '고향'은 고양시이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고양시는 파주시보다는 아래에 위치하지만 그래도 남한만 두고 봤을 땐 꽤 위쪽에 위치한 곳이다. 그 동안 미처 몰랐지만 이 글을 쓰기 위해 찾아보다가 처음 안 사실인데 고양시도 남북 접경지역에 속한다고 한다. '남북 접경지역 고양시의 딸'로서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전쟁 이야기가 나왔다. 그 때 어떤 친구가 그랬다. "우리는 고양시에 살잖아, 여긴 북한이랑 가까워서 전쟁 나면 우리부터 다 죽는데!" 그 친구는 우리나라 전도를 펼쳐 놓고 북한과 고양시의 위치를 손가락질하며 열변을 토했고, 나는 너무 무서웠다. 파주에 있는 땅굴 얘기까지 나오면서 전쟁이 나면 그 땅굴을 이용해 북한군이 쳐들어 올 거고 그러면 가까운 고양시는 먼저 점령당할 거라는 친구의 실감나는 설명에 어찌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나는 결국 집에 가 아버지한테 화를 냈다. 아니 왜 하필 서울에서 고양시로 이사를 온 것이냐며 전쟁이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 거냐고 빨리 더 아래로 이사 가자고 때를 썼다.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요즘은 무기가 발달해서 굳이 힘들게 땅굴 파서 여기까지 안 와. 바로 미사일을 쏘지. 미사일은 멀리 쏘니까 오히려 북한과 가까운 고양시는 안전하단다." 듣고 보니 아버지 말도 일리가 있게 느껴졌지만 한동안 나는 전쟁이 나서 도망 다니는 꿈에 시달려야 했다.

한반도 전쟁 스트레스는 숙명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웃픈' 일이다. 하지만 현

실이기도 하다. 이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전쟁의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설사 과장된 것이더라도 아예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스트레스 공화국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는 전쟁 위협이 꼽히곤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휴전 상태로 분단된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숙명인 것일까. 사실 전쟁은 영화에서,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 전쟁은 엄연히 현대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전쟁, 폭력을 피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난민은 2018년에만 7천만 명이 넘는다. 남한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에 희생돼 죽어가는 사람들, 아이들이 있다. 지리적 거리가 있어서 느끼지 못할 뿐,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무관심한 만큼, 우리한테 전쟁이 나도 그들은 무관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전쟁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든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 이 세계는 연간 77조 원 이상의 재래식 무기를 사고팔고 있으며, 수만 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곳이다. 전쟁의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지난 12월 초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북미 대립이 고조되는 것에 관해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그의 견해를 정확하지 않다고 일축했지만 '한국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로도 또 한국인들은 전쟁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북한이 미

사일 실험을 한다는데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전쟁이 나면 어떡하느냐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물론 근거 없는 전쟁 공포라든지 과잉 공포 조성은 옳지 않다. 하지만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악화될수록 우리 국민들의 전쟁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당국 간에 험악한 말이 오가고, 화염에 불바다 얘기까지 보자보면 ‘혹시’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출근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 통신도 다 끊길 텐데 만날 곳을 정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것이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도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기에는 부족하다.

나는 2019년 3월부터 통일부를 출입하기 시작했다.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였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치르며 분주하게 흘러왔던 2018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기 시작한 때였다. 통일부 출입이 막 결정됐을 때는 연이은 회담에 정신이 없었던 2018년의 기억에 앞으로 매우 바빠지겠다고 생각했지만 2019년은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바쁘기는 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잦아졌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이 돌연 철수하기도 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했고, 북한의 ‘새로운 길’을 언급하는 담화와 발언도 쏟아졌다. 2018년의 ‘바쁨’은 그래도 희망과 기대로 힘이 났다고 하는데, 2019년의 바쁨은 무기력했고 탄식만이 함께 했다. 통일부 출입 기자들에게 가장 큰 소원으로 꼽히는 평양 방문도 손앞에 잡

힐 것 같았던 2018년과 달리 요원한 일이 돼 버렸다. 2018년 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단둘이 거닐며 대화를 나눌 때는 정말 곧 통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적어도 핵전쟁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2019년은 그 기대감이 점점 실망으로 바뀌는 해였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위기를 맞았고 남북관계도 계속 후퇴했다. 2018년에는 볼 수 없었던 북한의 로켓 발사 사진이 2019년에는 뉴스를 도배했다.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때만 해도 한껏 부풀어 올랐던 이산가족들의 기대도 차가운 현실의 벽에 다시 부딪히고 만 것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의 승리를 꿈꾸며

실망은 피로로 이어지기도 했다. 무언가 정말 될 것 같았던, 평화가 바로 눈앞에 와 있었던 것 같았던 2018년에서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자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을 표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역시 바뀌지 않는다는 거다. 심지어 대화를 포기하고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도 한다.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을 분석하는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잘 잘못에 대한 평가도 다를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법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개선하기엔 나 자신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평화보다는 당장 힘을 통한 문제 해결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의 국면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평화의 가치를 저평가하며 쉽게 얘기하는 것이다. 평화로 가는 길에



여전히 한반도 평화 정착이 이뤄지지 않았고,
핵전쟁 위험도 견히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의 선택지는 늘 평화여야 한다.

선택할 수 있고,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노력했으면 한다.



대한, 방법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 그건 당연하다. 지금의 상황만 봐도 충분히 비판할 거리가 많다. 가뜰이나 반으로 갈리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인 만큼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이지 목표까지 갈려서는 안 된다. 평화라는 목표를 희화화거나 혹은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대다수 젊은이들,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전쟁을 겪은 적이 없다. 이미 수십 년간 무기 개발을 경쟁적으로 해온 이 상황에서 전쟁이 한국전쟁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친구의 말에 더해 생생한 전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건 분단국가의 현실 때문이기도 했지만 전쟁에 대한 무서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된 것도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필독 도서였던 고(故) 권정생 작가의 소설 <몽실언니>는 지금 다시 읽어도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몽클한 작품이다. 갑자기 들이닥친 전쟁으로 몽실이의 아버지는 전장으로 끌려갔고 새어머니는 동생을 낳다 죽고, 고모는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몽실언니> 속 세상은 참담하다. 탱크가 밀어닥치고 비행기가 폭탄

을 떨어뜨리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지뢰가 묻히고, 식량이 없어 굶고 병이 든다. 아이들은 “땅, 쿵!”하는 목을 쭉 빼면서 혀를 내밀고 총에 맞아 죽은 어른들 시늉을 낸다. 전쟁은 그런 세상이다. 전쟁에 승자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 전쟁에는 승자가 있을 수 없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전쟁연구가인 켄시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다. “폭력이나 전쟁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 인공적인 것이다.”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평화다. 그만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 평화 정착이 이뤄지지 않았고, 핵전쟁 위험도 견히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의 선택지는 늘 평화여야 한다. 선택할 수 있고,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노력했으면 한다. 이 땅 또 어딘가에 나의 어린 시절처럼 전쟁을 걱정하고 있을 아이가 없도록, 아직은 더 노력해야 할 때다. 🌈

김민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2014년 KBS에 입사한 6년차 기자다. 현재 보도국 통일외교부 소속으로 통일부를 출입하고 있다.



‘북핵’, 풍자 소재로 삼은 스웨덴 베스트셀러 소설

요나스 요나손의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2019)론

+ 오태호 경희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북한’에서 읽히기 어려운 풍자소설

이 책은 북한에서 ‘절대’ 읽힐 수 없을 것이다. 농축 우라늄 504kg을 비밀리에 수입하여 핵무기화하려는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노선을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령형상문학’이 주체사실주의 문학의 최고 반열에 해당하며 ‘당문학’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절대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기에 창작되거나 출판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통되거나 소비될 수 없다. 그러나 ‘수령-당-인민’의 삼위일체를 지향하는 ‘주체조선’의 핵 무력 강화 방향을 문학적 소재로 활용하면서 정면에서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의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2019, 이하 『핵노인』)이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1세 노인』(2013)이 ‘101세 노인’ 알란을 주인공으로 스탈린, 마오쩌둥, 트루먼, 김일성과 김정일 등을 만나는 부분이 나오는 등 ‘20세기 역사’에 대한 풍자를 진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다면, 속편 격인 『핵노인』은 ‘101세가 된 알란’을 주인공으로 21세기에 접어들어 ‘핵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매개로 ‘핵’을 무기화하려는 북한과 전 세계 열강들의 서로 다른 입장과 관계를 풍자한다. 전작이 100세 생일에 주인공 알란이 양로원을 탈출하는 내용에서 출발한다면, 이번 작품은 발리에서 101세 생일에 열기구를 타고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되는 대목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번 편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를 중심으로 메르켈, 푸틴 등 현실 세계의 핵심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작가의 시

각처럼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여 핵무기화하려는 북한의 욕망이 과연 풍자의 대상으로 서사화될 수 있는지 『핵노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01세 노인의 좌충우돌 ‘농축 우라늄’ 가로채기 활약상

영화 <포레스트 검프>식으로 펼쳐지는 100세 노인의 좌충우돌 활약상을 다룬 ‘노인 로드 무비 시리즈’ 2탄인 『핵노인』의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시작된다. 무료하고 지루하게 생활하던 주인공 100세 알란 칼손은 ‘검은색 태블릿’을 우연히 손에 얻게 되면서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이미 일어난 일들, 얼마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대략 파악하게 된다. 이후 태블릿은 알란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되고, “큰 사건들과 작은 일화들”의 뉴스가 뒤섞여 있어 알란에게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

알란은 올리우스와 함께 101회 생일 파티를 여는 날, 실수로 조종사 없이 열기구를 타고 날아올라 발리를 떠나게 된다. 이후 연료가 바닥나서 추락한 인도양에서 북한의 벌크 화물선 <명예와 힘>호에 의해 구조가 되면서 ‘북한의 농축 우라늄 밀매’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배의 공식 임무는 3천 톤의 곡물을 쿠바의 아바나에서 평양까지 운송하는 일이지만, 선장의 서류 가방에는 ‘농축 우라늄 4킬로그램’이 함께 실려 있다.

알란은 러시아로부터 원심 분리기 한 대를 제공받으면, 농축 우라늄이 플루토늄을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판단을 알게 된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 미사일 북극성 2호’

를 발사한 뒤 미국, 일본, 한국의 공동 발의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북한의 핵 실험’을 규탄하게 되고, 스웨덴의 외무장관 마르고트 발스트뢰프가 ‘최고 영도자 김정은’을 설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분위기 속에 울리우스는 살아 남기 위해 알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핵무기 전문가’라고 거짓말한다. 뒤 이어 알란은 아직 북한이 우라늄 농축법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 ‘열간 등압 압축법’이라는 폭발력이 8배 강한 신기술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결국 알란은 ‘국제적 핵무기 전문가’이자 ‘스위스인’으로 둔갑한 뒤 평양을 방문하여 연변 플루토늄 연구소 소장에게도 ‘열간 등압 압축법’이 자신이 제네바 부근의 비밀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라고 거짓말한다.

알란을 만난 김정은은 현재 북한에 농축 우라늄이 4킬로그램 있으며, 500킬로그램은 현재 이송 중이라면서 핵 개발 방법의 전수를 부탁한다. 2017년은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 최고조의 긴장 상태가 벌어져 ‘말의 전쟁’이 이어질 때에 해당한다. 이때 평양의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김정은과 발스트뢰프 외무장관의 일방적인 대담이 이루어진다.

“쌍방 간의 평화는 모두의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기에 난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이 원할 때에만 이뤄지는 것입니다. 서글프게도 지금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를 파멸에 몰아넣으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북조선 인민들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핵 최강국의 위치는 결국에는 워싱턴, 도쿄,

서울의 악랄한 전쟁광들로부터 사랑과 평화의 중심지인 이곳으로 옮겨질 것입니다.”(108~109쪽.)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대담을 주도하는’ 김정은은 이 소설에서 풍자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작가에 의해 ‘사랑과 평화의 중심 지도자’라는 ‘허울’을 지닌 ‘독선적 지도자’로 그려진다. 김정은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삼각 동맹 전쟁광’들로부터 북한을 수호하기 위해 ‘핵 무력 강국’을 선포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나온 ‘수령형상 단편소설’인 리동구의 ‘성전의 나팔소리’(『조선문학』, 2018. 1)에도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구현되는 성전”이 강조되는데, ‘평화를 위한 전쟁 불사’라는 논리는 ‘전쟁광들로부터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핵 무력 강화’와 연결되는 논리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요나손의 서사화 작업이 사실 관계를 비틀어 속내를 꼬집는 풍자 문학의 전형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후 알란과 울리우스는 평양 북쪽 플루토늄 공장에서 ‘농축 우라늄 4킬로그램’을 가지고 도망치는 계획을 세운다. 알란은 2배의 폭발력을 지닌 화학식이라면서 ‘나일론 스타킹의 화학식’을 알려주고는 UN의 비행기를 타고 울리우스, 발스트뢰프 장관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향한다. 알란은 워싱턴에서 트럼프를 만나지만, 트럼프가 ‘조그만 로켓맨과의 전쟁’에 몰두하는 까닭에 그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충동 조절법’을 배우라고 비판한 뒤, UN 주재 독일 대사에게 ‘농축 우라늄 가방’을 건넨다. 이후 스웨덴에 도착한 알란과 울리우스는 사비네와 함께 <자부심을 갖고 죽자>사를 세워 우여곡절 끝에 케냐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농축 우라늄 400킬로그램’

을 획득하여 메르켈 총리에게 전달한다. 그 대가로 흙 400톤의 비용인 1천만 케냐 실링을 요구하여 실제 값의 10배를 받아낸 뒤, 세 사람은 <프레드리카랑거의 향토 아스파라거스>를 케냐에서 재배하며 검정, 빨강, 노랑의 삼색 리본으로 묶인 상품을 독일 전역에 판매하게 된다. 작품 말미에는 알란이 ‘트위터’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작품이 종결된다.


결국 『핵노인』은 101세 노인이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노력을 다루면서 ‘농축 우라늄’을 매개로 전 세계적인 좌충우돌 활약상을 그려낸 풍자소설이다. ‘풍자’는 주어진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비꼬아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작품은 2017년 말 ‘핵 무력 강국’을 선포하기까지의 김정은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를 작품의 서사적 열개로 활용하면서 기존 텍스트의 로드 무비 활약상을 다시금 보여준 풍자 텍스트인 셈이다.

‘흑덩이’와 ‘매혹덩이’ 사이

『핵노인』에서 핵심적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는 정치 지도자는 김정은과 트럼프이다. 2017년 말까지 두 지도자는 스웨덴 발스트룀 외무장관의 고백을 빌리자면 “태평양 양편에 하나씩 서 있는 거대한 자아,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두 개의 흑덩이”(505쪽)로 평가절하된다. 이러한 평가는 2017년까지의 모습에 대한 적실한 비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까지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던 두 지도자의 모습은 2018년 이후 사라진다. 그리고 최소한 2019년 12월 현재까지는 다양한 부침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안착을 위한 비핵화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매혹덩이 지도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0년을 코앞에 둔 한반도의 분위기는 다시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남북 관계도 냉랭할 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강대강의 대결로 흐르면서 서로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7년까지 진행되던 말 폭탄의 비유 중 하나인 ‘로켓맨’과 ‘미치광이’라는 표현이 북미 양쪽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지난 2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여정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대전제 아래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핵노인』은 성역과 금기를 넘어서려는 문학적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보여주는 풍자소설에 해당한다. ‘고상한 사실주의’ 이래로 긍정적 인간형만을 그리는 것이 과업인 북한 문학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작품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학은 동서고금 이래로 항상 동시대적 현실의 한계를 넘어 상상력의 세계를 확장해온 전력이 있다. 금기의 위반과 해체가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 문학적 성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핵노인』이 서구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지어낸 ‘부르주아 반동문학의 소산’이라고 배제될 것이 아니라 문학적 허구라는 전제 속에 남북이 함께 읽어낼 수 있는 풍자문학의 일환으로 호명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오태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앓다』, 『허공의 지도』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우표특별전 “헤어져 있으나 같은 꿈을 꾸다”

+ 편집부

지난 12월 10일부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4년여에 걸쳐 <민족화해>지에 ‘우표로 보는 남과 북’ 연재를 하고 있는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이 소장하고 있는 남북의 우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상동몽(異床同夢)-헤어져 있으나 같은 꿈을 꾸다> 주제의 남북우표특별전이다. 통일부가 주최하고 (주)태인, 이콘텐츠제작소가 주관해 진행되는 이번 전시전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도 후원으로 참여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전시전은 다른 곳, 다른 시간이지만 동일한 소재를 테마로 발행된 남북의 우표를 통해 남북이 자연과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한민족임을 확인하고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세계적인 수준의 북한 우표를 포함해 33년간 남북의 우표를 수집해 온 이상현 위원이 소장하고 있는 우표들을 대상으로 자연, 인물, 문화유산, 민속놀이, 통일기원 등 같은 소재를 테마로 발행된 남북우표와, 우리나라 최

초의 우표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표발행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남북우표 약 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전시장 내에는 작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우표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돋보기를 배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전시는 크게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프로그래이션 전시전의 목적을 소개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서면 보이는 북한과 우리는 비록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나라의 국민이었고 한민족임을 동일한 테마로 발행된 작은 우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시되고 있는 우표들을 미리 대형 화면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문위우표, 이화우표, 태극우표 등 초기 우표들을 배경으로 있는 조선후기 집배원 모형과 해방 이후 발행된 우표들을 배경으로 있는 1950년대 집배원 모형이 포토존의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왜 우표전시예요?’이다. 우편요금 납부를 위해 탄생한 우표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을 모두 담고 있어 크기는 작지만 역사의 기록물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큰 문화콘텐츠다. 때문에 여기에선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표의 구성 요소와 용지 종류, 그리고 발행 목적에 따른 우표의 분류 및 날짜도장 등을 그림과 사진을 통해 쉽게



1. <이상동몽(異床同夢)-헤어져 있으나 같은 꿈을 꾸다> 남북우표특별전 포스터 앞에 선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
2. 한 관람객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주제 코너에서 전시된 우표들을 관람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우표 통한 남북의 소통과 화해

세 번째 주제는 ‘우표발행의 역사’이다. 1884년 발행되었지만 갑신정변으로 20일만 사용되고 사라진 비운의 최초우표에서부터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 시기에 강대국의 간섭 속에서 남과 북에서 발행한 우표들,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대별 이슈들을 다루며 발행된 남북의 대표우표들을 만날 수 있다. 이상현 위원은 여기에 우표 마다 숨겨져 있는 발행 뒷이야기도 흥미롭게 담아 관람객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 있다.

네 번째는 이번 전시전의 메인 테마라 할 수 있다. ‘우연? 필연!’이란 주제에서 알 수 있듯, 같은 소재의 남북우표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전시했다. 금강산, 독도, 호랑이, 곰, 물고기 등을 다룬 ‘우리의 소중한 자연’, 문익점, 세종대왕, 이순신, 허준, 김정호, 정약용, 이준, 안중근, 김구 등을 다룬 ‘우리의 빛나는 영웅들’, 첨성대, 다보탑, 고려청자, 팔만대장경, 김홍도의 풍속화, 정선의 회화 등을 다룬 ‘우리의 뛰어난 문화유산’, 토끼전, 흥부전, 춘향전, 고향의 봄, 아리랑, 널뛰기, 소고춤, 편종 등을 볼 수 있는 ‘함께 즐기는 문학과 민속’, 전국체전과 올림픽 우표들이 전시된 ‘함께 즐기고픈 땀과 눈물’, 남북의 대표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이젠 함께 나눠 먹어요’, 그리고 이 전시의 목적지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총 7개의 코너를 살펴보다 보면 신기함과 감동 그리고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다. 본디 우리는 하나였음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우표들을 통해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가 될 남북의 내일을 그려보게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구성은 ‘안녕, 친구야!’다. 관람



2018년 6월 12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북한의 우표.

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로 북에 있는 가상의 친구에게 디지털로 엽서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커다란 터치스크린을 통해 대한제국시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초기 엽서와 쌍을 이루고 있는 남북대표 우표를 선택해 자신만의 엽서를 만들고 그 위에 가상의 북한 친구에게 직접 메시지를 쓴 후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엽서들은 애니메이션 효과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화면에 등장한다. 관람객이 작성한 엽서는 전자메일을 통해 직접 받아볼 수 있다.

2020년 2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관람이 가능한 <이상동몽(異床同夢)-헤어져 있으나 같은 꿈을 꾸다> 남북우표특별전은 조금은 색다른 시선으로 우표를 바라보고 또한 남과 북의 분단과 평화 그리고 통일을 바라보게 만든다. 언젠가 남북이 함께 만나 서로의 우표를 살펴보고 그 놀라운 동질성에 슬그머니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본다.



이번 전시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전시회는 처음으로 남북의 우표를 함께 전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상동몽’이라는 전시 타이틀처럼, 남북 우표에서 같은 주제와 도안들을 찾아내 비교전시 함으로써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민족의 동질적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통일을 향한 화합의 염원을 담고자 했다.”

오랫동안 북한 우표를 수집했고, <민족화해>지에 장기 연재도 이어왔다. 북한 우표를 수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우표를 통해 바라본 북한은 어떠한 모습인지 궁금하다.

“우표 수집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1985년부터다. 지금까지 34년 정도 우표 수집을 해왔는데, 북한우표를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12년경이다. 당시 우표전시회에서 일본인 수집가가 북한우표전시로 큰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희귀 북한 우표 대부분이 일본 수집가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 국력이 약할 때 많은 문화재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나. 북한우표도 우리가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수 있는 통일시대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해 수집을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에게 우표는 체제의 선전차원과 외화획득의 수단도 되는 것 같다. 북한 우표 발행 시스템이나 특징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

“우선, 북한은 남한보다 많은 종류의 우표를 발행한다. 체제 선전을 위한 우표들도 많이 발행되지만, 해외 우표 수집가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제의 우표들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종류가 많다. 또 국내용 우표와 해외수출용 우표에 차이가 있다. 국내 사용 우표들은 체제와 관련된 우표들을 주로 사용하고, 뒷면의 우표풀이 없고, 또 우표가 전체 붙어있는 전지 구성도 수출용 우표보다 수가 많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에 큰 종이에 여러 장을 인쇄하고, 풀이 발려진

“우표 통한 남북 평화의 메시지, 세계에 알리고파”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한국우편업서회 회원

고급 종이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종이를 사용한다. 현재 전 세계에 걸쳐 북한 우표 수집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이 한반도 주변, 그리고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 수집가들이 많아 보인다. 북한의 우표 수출에 대한 공식 자료는 알려진바 없지만, 수집가들로부터 선호하는 주제의 신청을 받기도 하고, 국제우표전시회장에도 참여해 부스를 통해서도 우표를 판매한다고 하니, 북한의 여러 상품 중 우표만큼은 상대적으로 매우 상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전시회 이후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지금까지 지면 연재를 통해 남북 우표를 소개해왔고, 2018년 말에는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최초로 북한 우표를 체계적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이번 통일부 초청 남북우표전시회에서 남북 우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제는 남북 뿐만 아니라, 해외의 한국문화원을 통해 남북우표 속 우리의 모습을 세계인에게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평양에서 남북우표전시회를 성사시키는 것도 큰 목표 중 하나다. 남북 우표수집가들의 교류도 성사되었으면 한다. 우표는 우편요금의 증표일 뿐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매우 크다. 한 나라를 알리는 발 없는 외교관일 뿐 아니라, 서로의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체로서 남북 분단의 아픔을 뛰어넘는 남북 서신 및 통신 교류에 이르기까지 우표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의 힘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리를 살려야 한다 영화 <부부 지배인>

+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경제 현장의 사령관 '지배인'

양(量)과 질(質). 어느 것이 중요할까? 북한 경제에서 우선한 것은 양이었다. 생산량, 목표량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었다. 목표보다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북한 경제는 양적 성과보다 질적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생산을 해도 실속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2001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부부 지배인>은 이런 실리 중시의 경제 정책을 즉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이다. '부부 지배인'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 지배인>은 공장 지배인으로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이다. 지배인은 생산 현장을 총괄하는 사령관이다. 지배인의 지휘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양적 성과를 중시하는 부인과

과학적 사고로 실리를 중시하는 남편이 경쟁한다.

부인인 옥녀는 간장, 된장 등의 장(醬)류를 생산하는 장공장의 지배인이다. 오랜 지배인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 남편 석근은 지배인 생활은 처음이다.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다가 공장지배인으로 배치 받고 출근하는 길이다. 경험에서 앞선 옥녀와 처음이지만 과학으로 무장한 남편을 대비시켜 경제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핵심은 신사고이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2000년 이후 '신사고론'이 등장하였다. 과거의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신사고론'의 핵심이다. 새로운 시대, 변화된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 기풍과 일본

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선 선차적인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의 새 방향은 그렇게 21세기가 시작된 2000년부터 시작하였다. 21세기는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세기’이므로 ‘더 용감하게, 더 빨리, 더 높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사고의 핵심은 과학화와 효율성이다. 생산 현장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성과를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베테랑 지배인 옥녀와 신참 지배인 석근의 생산 경계

부부가 지배인으로 출근하는 첫날, 옥녀의 걱정은 컸다. 옥녀는 일찍부터 장공장에서 지배인 생활로 잔뼈가 굵었다. 옥녀가 지배인으로 있는 장공장은 생산 경쟁에서 한 번도 일등을 빼앗겨 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일등은 당연해 보였다. 반면 남편 석근은 완전 초보였다. 과학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만 하다가 수지일용품공장 지배인으로 발령받았

다. 경력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었다.

그런 두 사람이 경쟁을 붙였으니 결과는 뻔하였다. 옥녀의 걱정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 중간 평가에서 옥녀의 장공장은 예상대로 1등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석근의 공장은 꼴등을 하였다. 예상 못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옥녀는 불안했다. 석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석근은 옥녀의 도움을 거절했다. 석근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장에서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다. 중간 평가에서는 꼴지를 하였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었다.

두 사람의 공장 경영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오랜 공장 지배인 경험이 있는 옥녀는 생산량에 초점을 두고 공장을 운영하였다. 된장 기계가 고장이 나자 부랴부랴 적정 용량보다 큰 전동기로 대체하였다. 적정 용량의 전동기를 기다리는 동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에너지 소비가 높은 큰 전동기로 대체하면서 생산량을 맞추도록 하였다. 옥녀네 공장에서는 늘 목표 생산량을 맞추었지만 장맛은 떨어졌다. 옥녀네 공장 근처의 사람들은 맛있는 장을 찾아 멀리 이웃 마을까지 갔다. 옥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없어서 먹지도 못했는데, 장맛을 두고 말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라면서 무시하였다.





합리적 경영과 효율적 생산 체계 구축하는 석근

한편 석근은 공장 곳곳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가기 시작하였다. 공장을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현장을 조사하였다. 석근은 곳곳에서 문제를 발견하였다. 필요 이상의 높은 전력을 소비하는 분쇄기 기계가 있었다.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였지만 석근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 공장을 멈추고, 적정 용량의 분쇄기 기계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낡고 오래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계는 효율성이 높은 새 기계로 바꾸었다. 컴퓨터도 적극 활용하였다. 그렇게 생산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갔다.

회의시간도 크게 줄었다. 예전에는 공장에서 회의가 시작되면 2시간은 걸렸다. 하지만 석근은 불필요한 회의 서류를 없애고, 공동시설에서 요구한 대로 '실리가 나고 효율적으로 요점' 위주로 진행하였다. 2시간이나 걸리던 회의 시간은 15분으로 줄었다. 회의 시간도 예고한 대로 정확히 지켰다. 사람들이 회의하러 와서 빈둥거리지 않도록 하였다.

석근의 변화는 공장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석근이 하는 행동은 2001년 1월 1일자 『로동신문』 등을 통해 언급한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진은 현 시기 경제사업의 중심고리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대담하게 현대적 기술로 갱신해 나가며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워야 한다. 온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 오르게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옥녀는 그런 남편이 은근히 걱정되었다. 저러다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았다. 일용수지 공장의 기계가 고장이 났다. 그러나 옥녀는 ‘지금은 물건이 없어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큰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완성품으로 올려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면서 불량품을 완성품으로 처리하라고 석근을 부추겼다. 하지만 석근은 인민 생활을 위해서는 불량품을 완성품으로 할 수 없다면서 거부하였다.

석근은 공장의 생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결심하였다. 당에서는 ‘실리’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21세기였다. 석근은 공장원들에게 20세기의 낡은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합칠 것은 합치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침내 석근의 공장에서는 효율성을 높인 합성로기계를 완성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군내 공장들의 경쟁이 끝났다. 최종 평가가 발표되는 날이었다. 최종 평가에서는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 실리가 중심이었다. 석근내 공장은 생산원가를 5% 낮추어 일등을 하였다. 반면 옥녀네 공장은 전력과 자재를 낭비하여 원가를 초과하여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옥녀네 공장은 32등으로 꼴찌를 하였다. 옥녀는 경험만 믿고 혁신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였다. 본격적인 기계 설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마침내 장공장도 현대화된 설비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생산 공장 지배인에게 요구하는 ‘혁신’이란

북한의 경제 혁신 방향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결정되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 2000년 이후 21세

기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과거와는 다른 혁신이 필요하였다. <부부 지배인>은 새로운 시대 경제일군의 ‘일본새’와 ‘사업작풍’, ‘사업방법’의 모범을 제시하였다.

옥녀는 생산품질이나 에너지 효율은 따지지 않고, 생산량에만 몰두하는 낡은 시대를 상징한다. <부부 지배인>을 제작한 이유는 이런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란 바로 석근이 추진했던 과감한 개혁과 혁신이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 방식을 통해 생산과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며, 회의시간을 합리화하여 시간 낭비를 없앴다. “아직도 낡은 것을 붙들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사상관점으로 냅다 밀어붙시다”는 대사는 <부부 지배인>의 제작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거례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이사,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NEW BOOK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잖구나 - 통일을 기대하게 하는 북한 음식 이야기

김양희 / 도서출판 폭스코너 / 2019. 12

북한과 식물을 모두 전공하고 현직 사무관(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으로 근무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 김양희 작가의 북한 음식 이야기다. 이제는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될' 북한 향토 음식들의 유래와 요리법을 소개해 북한의 식문화는 물론, 나아가 통일 한국 시대 한반도의 맛을 미리 소개한다. 70년을 갈라져 있었으나 그 이전에 반만년을 함께 해온 한민족의 맛이 여실히 담겨 있다. 육류관 평양냉면은 진짜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면, 평양 4대 음식의 내력이 궁금하다면, 개성 부자들감과 함경도의 별미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왔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이 해답을 제시해준다. 저자가 북한을 몇 차례 직접 방문하며 먹어본 음식의 맛과 추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어, 책을 읽다 보면 비록 당장은 직접 먹어보지 못한다 해도 그 맛의 일단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 맛과 음식 조리 과정의 소개뿐 아니라, 그 음식에 얽힌 설화와 유래, 북한에서 발전해온 역사와 과정 등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어 북한이라는 체제와 그곳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는 고마운 책이다.



북한 트렌드 2020 - 전통과 미래의 융합

김민중 / 책과나무 / 2019. 11

최근 수년간만 해도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었고, 짧은 기간 내에 백화점·상점 내에 새로운 신상품이 들어서고 있다. 사양에 민감한 전자장비 역시 언제나 업그레이드된 사양이 출시되고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는 다양한 신제품들이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에서는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를 크게 소비와 문화 분야로 나누고, 그 아래 스마트폰, 쇼핑, 자동차, 화장품이나 의복, 음식, 주거, 문화예술 등의 세부 카테고리를 두고 각 카테고리별로 역사와 현황, 북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한 최신 트렌드의 변화 및 분석, 그리고 2020년의 트렌드를 전망한다. 사진과 글로써 북한 사회의 현재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 정보의 접근성과 특수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정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냈으며 변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과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전통 보존'과 '미래 지향'으로 해석하여 북한 사회를 읽는 데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

김민주 / 산지니 / 2019. 12

휴전선 넘어 북한으로 출근하는 일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언젠가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북한'으로 취업준비를 하게 될 날이 올까? 북한 주민들과 직장동료가 되는 소설 같은 일이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이었던 '개성공단'에서는 가능했다. 『나는 개성공단으로 출근합니다』에는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저자가 1년 간 개성공단 공장동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며 만난 북한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봉사활동을 위해 찾아간 파키스탄에서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밥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을 만난 기억이 있다. 그 모습에서 분단된 조국과 그 땅에서 일어났던 한국전쟁을 떠올리고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아문제로 고통 받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영양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가 접하는 북한의 소식은 대중매체를 통해 정제되고 가감된 이야기다. 하지만 북한에는 김정은이나 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도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족을 먼저 떠올리고, 고부 갈등을 겪고, 겨울엔 김장을 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 세관원, 군인, 노동자들, 면세점 아가씨, 경비원, 그리고 매일 함께 살 맞대며 울고 웃었던 북한 직원들, 곧 평범하고 소소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있다.



입룩강은 휴전선 너머 흐른다

- 멈출 없는 남북 만남, 돌아보고 내다보는
문화인류학적 조감도

강주원 / 놀민 / 2019. 12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섬나라와 마찬가지로”라는 자조적인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휴전선은 한국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폐쇄적인 국경선 노릇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로운 남북 관계와 활발한 경제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 휴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휴전선이 닫혀 있으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불안정해진다고 믿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휴전선은 남북 관계를 통제하기에 가장 유력한 수단인 셈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 현지를 수십 차례 드나들며 조사 연구한 저자는 책을 통해 정부 의존적이고 휴전선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 도시 단둥,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 남한, 북한, 중국, 북한화교들의 활발한 무역과 교류 활동을 기록하여 휴전선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휴전선 너머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대의 눈은

몇 개인가요?

+ 엄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2019년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시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것을 새삼 확인했다고 해야 할까. 두 가지였다. 생각보다 뒤끝이 센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눈물이 많다는 것.

점점 더 하루가 짧아진다. 무엇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후다닥거리다 벌써 연말이다. 어쩐지 한 해의 어느 귀퉁이를 나도 모른 사이 빼앗긴 것 같다. 정말 한 해를 온전히 보낸 것이 맞을까?

어쩔 수 없이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살전스레 대한 적은 없었는지, 무림없이 다른 이의 허물을 부르대지는 않았는지, 삶을, 시간 속 나의 흔적과 행동을 곱새기지 않고 그저 제 ভাল 맛에 영똥한 것을 두남두지는 않았는지. 생각할수록 그저 남세스럽다. 여전히 웅글지 못한 녀석이다.

뒤끝이 세다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에 여전히 서투르다는 것이다. 어차피 돌아보면 상대방과 나 모두 어금버금하기에 벌어진 갈등이고 미움일 텐데,

순간 치밀어 오르는 울뚝뺨을 참지 못하고, 또는 그 화를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마음속에 무장 쌓아두는 어리석음이다. 여전히 삶의 고갱이를 찾지 못하는 어리보기인 셈이다.

자유로에서 흘린 눈물

지난 12월 10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았다. 마치 안개처럼 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했던 날. OECD 국가 중 공기 질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나라다웠다. OECD 회원국 중 32개국 3,000여개 도시 가운데 ‘공기 질 최악의 100개 도시’에 한국 도시 44곳이 포함됐다는 기사가 문득 떠올랐다.

<민족화해>지에 ‘우표로 보는 남과 북’ 연재를 하고 있는 이상현 체육교류위원이 이곳에서 남북우표 특별전을 열고 있었다. 30여 년 동안 남북의 우표를 수집해 온 그는 우표를 통해 남북의 동질성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전시를 둘러

보다 기념품점에서 생똥맛게 건빵과 전투식량을 사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군 장병들이 단체로 전망대를 찾아 마주칠 수 있었다.

남북관계가 딱 이날의 미세먼지만큼 뿌연 상황. 하지만 장병들의 얼굴은 밝았다. 군복이 아니라면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이 단체 견학 온 것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았다. 군기를 유지하면서도(!) 저렇게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니, 대한민국의 안보는 굳건하구나, 느끼면서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평화학자 요한 갈통은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분단 이후 남북은 주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얻으려 했다. 지금도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차츰 차츰 평화를 통한 안보의 길로도 가고 있다. 조금은 불안해 보일 수도 있고, 못미더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나브로 평화를 끌어안고 또 한 해를 보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 자유로를 달리다 별안간 울컥했다.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냥 그러게 두었다. 올해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부라퀴들이 그야말로 매섭게 날뛴 시간들이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서로 증오했고, 그 증오의 힘으로 다시 제 편의를 늘리기 위해 연구력거렸다. 평화를 말하는 이들을 언죽번죽 조롱하고, 남북의 화해를 위해 애면글면 헌신해 온 이들은 윤뚝뚝이들 앞에서 무참했다.

그렇게 2019년이 저물어 간다. 새해의 희망을 담아야 할 텐데, 부디 큰 사달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지난 해 평창 이후 사라졌던 무력함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나선다. 눈물이 흐르게 그냥 그렇게 두었다.

새해엔 덜 바쁘고 더 행복하자

물론이다. 아직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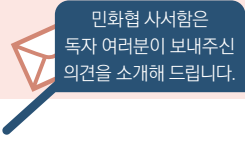
복과 바투 앉아 평화를 만들어내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올해를 가득 채웠던 우리 안의 불신과 증오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서초동의 국민과 광화문의 국민이 다르지 않듯, 여당의 지지자와 야당의 지지자가 다르지 않듯, 진보와 보수 역시 우리의 진보이고 우리의 보수다. 평화의 열매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전해질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 역시 우리를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의 화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주변 국가의 시선은 우리의 갈등과 분열에 주목하고 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동맹이나 이웃국가 역시 우리의 분열과 갈등, 증오를 밀절미 삼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북한 역시 다르지 않다.

변명 삼아 말하자면, ‘뒤끝’이 온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부당한 처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최소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은 정당한 뒤끝이 될 것이다.

올 한해 국민들은 너무 바쁘고 힘들었다. 생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역할을 다하느라 노고가 적지 않았다. 생각과 노선의 차이를 떠나 모두들 고생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새해에는 부디 덜 바쁘고 덜 힘들고 대신 더 많이 행복하기를 함께 기원하고 싶다.

티베트 격언 중 “지혜로운 사람은 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 새해엔 더 많은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직 나만 옳다는, 나만 잘 났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다양한 눈으로 다양한 시선들과 만나고 싶다. 우리안의 통일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자칫 우격다짐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안의 조화와 상생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 그대는 몇 개의 눈을 가졌나요? 🌈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1호의 정답은 ③번 '빌리 브란트'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서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영화 속 북한이야기

<영화 속 북한이야기>에 소개된 북한 영화 '버섯'을 읽고 북한 협동농장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주인공 정임의 활약으로 분조원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개개인의 역량이 키워지고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남과 북의 체제는 다르지만 조직에서 필요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유사합니다. 북한 영화를 통하여 북한 사회를 이해하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 배민주 서울시 구로구

기자의 눈

<기자의 눈> '남북통합을 위해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기사를 읽으면서, 과연 나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뒤돌아 보았습니다. 2030 청년층이 민족과 통일에 대해 생각이 열어지고 20대 청년층은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보수적이고 탈북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병역과 특례입학에 대한 반발 역시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보고 걱정되었습니다. 한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부재는 곧 분단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탈북민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교육부재가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북한에 대한 정규수업으로 젊은 층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 이해하고 같은 한민족임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0년에는 남북 간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가 되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 실향민들이 꿈에 그리던 고향을 방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은경 부산시 북구

생각과 생각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합니다. 남한이 막대한 자본과 시설을 투자한 금강산 관광시설이 철거위기에 놓여 안타깝습니다. UN의 대북제재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는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북한에게는 협력과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한상윤 경기도 남양주시

포토 에세이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의 "가을배추 수확" 풍경을 보니 우리네 농촌의 모습과 똑같네요. 여름 내 씨를 뿌려 이렇게 튼실하게 키워 하나하나 정성스레 수확해 긴 겨울을 대비하고 있네요. 또 집집마다 모여 김장을 할 텐데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깝네요.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북쪽의 유명한 백김치, 보쌈김치 등도 맛보고 싶어요!

★ 윤지연 전남 순천시

기자의 눈

남한의 20~30대층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에 필요한 남세를 반대하는 높은 통계 수치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한 사회에 정착하려는 탈북민에 대한 냉대와 멸시는 매우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동안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안보교육만 강조한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동포와 화합하여 공동번영을 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해야 합니다.

★ 최산도 충남 홍성군

남북우표특별전

이상동몽

The South-North Korean Stamps Special Exhibition
WE HAVE A SAME DREAM THOUGH WE ARE APART



헤어져 있으나 같은 꿈을 꾸다

동몽동환

2019.12.10. ~ 2020.2.16.
파주 오두산동일선광대 1층 기획전시실



#마을기업 #마을경제 #보성리



#마을기업 #주민일자리 #서광리



#마을기업 #청년농부 #알뜨르



#투자기업 연계 전문가 인재 양성



#JDC #제주를 위한 특별한 기업



#첨단입주기업 고용창출 #IT BT



#첨단과학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



#JDC면세점 #수익전액 환원



#자연보전 #곶자왈도립공원



제주를 위한 특별한

제주의 자연·문화·인재

지역 상생과 도민 행복을 위해 제주의 가치를 키워가겠습니다

제주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JDC

JDC는 제주의 가치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공기업입니다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